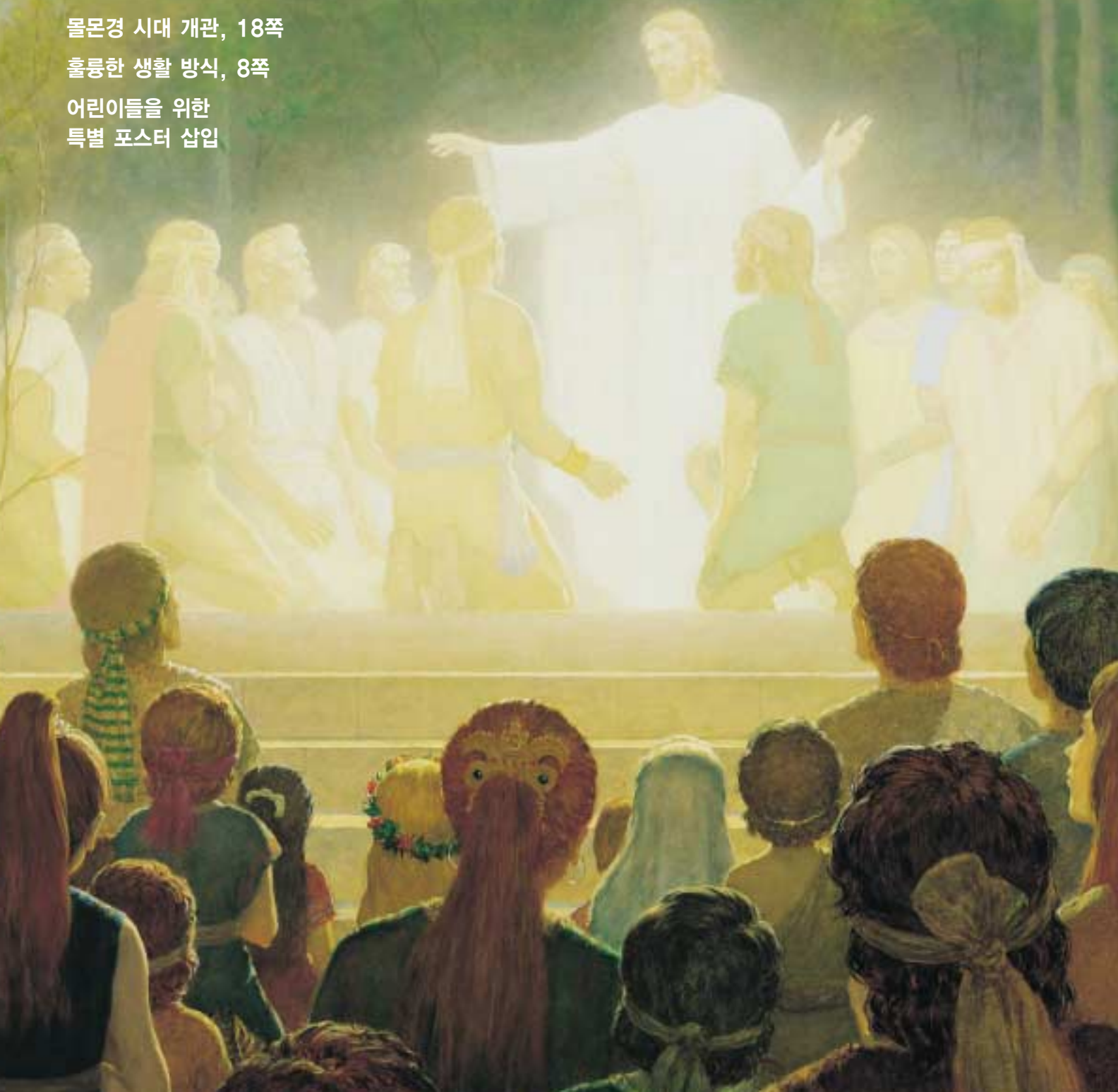


리아호나

몰몬경 시대 개관, 18쪽

훌륭한 생활 방식, 8쪽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포스터 삽입



몰

몬경은
종석입니다.
왜냐하면

몰몬경은 영원한 원리와 가르침을 한데 묶어 주며 구원의 교리를 완전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몰몬경은 우리의 기록한 경전 중에서 왕관의 가장 중요한 보석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우리 종교의 종석, 2쪽; 몰몬경 시대 개관, 18쪽 참조.



리아호나



표지

앞면: 그림: 마커스 알렌 빈센트, 이외에 무엇을 더 보았느냐?,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 제공, 제6회 국제 미술 대회, 뒷면: 그림: 아놀드 프라이버그, 노아 왕 앞에 나타난 아비아다미 및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리하이와 그의 백성: 그림: 게리 엘 캡, 니파이인들을 가르치는 베냐민 왕.



친구들 표지

그림: 게리 엘 캡, 주님의 모습에서 나오는 빛이 그 위를 비추니,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 제공, 제6회 국제 미술 대회

성인

- 2 대관장단 메시지: 우리 종교의 종석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18 물문경 시대 개관: 도표 1-이더서와 니파이일서에서 모사이야서까지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일상 생활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낌
- 26 히버 제이 그랜트: 어려운 시기를 이끌었던 예언자 세리 밀스 존슨
- 32 영구 교육 기금: 희망의 밝은 빛 존 케이 카머 장로
- 40 말일성도의 소리
지금 집에 전화를 걸어라! 바바라 엘킨스 캣멀
앞일을 알고 계신 주님 린다 심즈 드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분 세르지오 리베이로
- 48 애독자 편지

청소년란

- 7 포스터: 당당하게 용감히 섬
- 8 훌륭한 생활 방식 엘 톨 페리 장로
- 14 구하며, 기도하며, 믿으라
- 44 얼음 위에 핀 꿈 새나 가즈나비

친구들: 어린이란

- 2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라: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나니 토마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
- 4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생애에서: 브리감 영의 친구가 됨
- 6 성전의 축복 엔리케 알 팔라벨라 장로
- 8 신약전서 이야기: 신약 시대 이후에 있었던 일들
- 12 함께 나누는 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라 이 율슨
- 14 신앙의 노래 론다 킵 힌리치슨

삽입



함께 나누는 시간 포스터:
가족은 영원해



그림: 클리크 켈리 포라이스, 레뮤엘 골짜기에서 돌 제단을 쌓고 있는 리하이

“사흘 동안을 여행하고 나서 부친은 어느 강변 골짜기에 친막을 친 후, 돌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며 주 하나님께 감사드렸느니라.” (니파이일서 2:6~7)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입니다

대관장단: 고든 비 항클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킨,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머링

편집인: 데니스 비 노인슈인더
교문: 이 레이 배이트먼, 몬티 제이 브러프, 제이 이 쟈슨, 스티븐 에이 웨스트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프리스네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편집 책임자: 리차드 엠 롬니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편집 스태프: 콜리트 네베커 오온, 수잔 브렛, 라이언 카, 린다 스탈 쿠퍼, 라렌 포터 곤드, 사나 가즈나비, 제니퍼 엘 그린우드, 리사 앤 쟈슨, 캐리 카스텐, 앨빈 레빗, 샬리 제이 오데커크, 애덤 시 울슨, 쥬디스 엠 팔러,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와엘, 캄벨리 웰, 모니카 엑스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기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벤 캠펬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렌 프렛,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볼 보트, 하워드 지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브렌트 크리스티슨, 케리 린 시 해런,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버, 타드 알 피터슨, 랜달 제이 픽스톤, 마크 더블류 로비슨, 브래드 키어,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치워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터 크리스티슨

통 권: 제 454호, 제 41권, 제 1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4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세부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타이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밀어, 텔루구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4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January 2004 No. 1.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훌륭한 생활 방식”, 8쪽:
여러분이 열심히 구하고, 항상 기도하고 믿을 경우,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나 약속된 축복이 즉시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들에게 답하도록 부탁한 다음, 엘 톰 페리 장로의 대답에 대해 토론한다.

“히버 제이 그랜트: 어려운 시대를 이끌었던 예언자”, 26쪽: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모범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준 내용을 선택하고, 가족들이 이 모범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토론한다.

“앞일을 알고 계신 주님”, 41쪽:
가족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은 어떤 것을 위해 열렬하게 기도한 적이 있는지 묻는다. 린다 심즈 드류 자매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왜 주님께서 그녀가 원하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얼음 위에 핀 꿈”, 44쪽: 크리스 오브잔스키는 2006년 동계 올림픽 이후에 선교사로 봉사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영은 그에게 19세에 나가도록 속삭였다. 가족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인생 계획은 어떤 것인지 묻는다. 영이 그들에게 속삭일 경우 그들은 기꺼이 그 계획들을 희생할 수 있는가? 왜 희생과 신앙은 것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나니”, 친2: 주일학교 공과에 관한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의 이야기를 말해 준다. 가족들에게 이번 주에

누군가 더 큰 필요 사항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적게 한다. 다음 가정의 밤에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으며,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주는 일을 했을 때 느낌은 어떠했는지 묻는다.
“신앙의 노래”, 친14: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섭고, 긴장되고, 고통스럽거나 슬펐던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이 이야기를 그들과 함께 읽는다. 그런 다음, 그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 초등학교 노래를 부르면 좋은 느낌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순종, 26, 44
가르침, 1	신성한 본성, 친12, 친14
가정의 밤, 1	신앙, 8, 14, 26, 40, 친14
가족 관계, 친6, 친12	친14
간증, 2, 48	신약전서, 친8
경전 공부, 2, 8, 14, 18	역경, 40
구원의 계획, 친12	영구 교육 기금, 32
기도, 7, 8, 14	예수 그리스도, 25
끈기, 26	예언자, 26, 친4
물문경, 2, 18	요셉 스미스, 2, 친8
배도, 친8	우정, 친4
병 고침, 40	음악, 친14
봉사, 친2	자립, 32
사도, 40, 친8	지도력, 32
사랑, 25, 친2	회복, 2, 친8
상호 항상 모임, 8, 14	희망, 32
선교사업, 44	희생, 32, 친2
성신, 40, 44	히버 제이 그랜트, 26, 친4
성전, 친6	



우리 종교의 종석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아직도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하시던 책을 제 손에 들고 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것은 손때 묻은 아주 오래된 몰몬경이었습니다. 거의 매 페이지마다 표시가 되어 있었고, 조심스럽게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페이지는 책장의 모서리가 접혀져 있었고 표지는 얇게 닳아 있었습니다. 몰몬경을 읽는 것이 그 어떤 다른 책을 읽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 준다는 것을 아무도 어머니께 말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읽고, 연구하고, 그 책에 대해 기도했으며, 그것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몰몬경을 펼쳐 들고 어머니가 것처럼 사랑하시며 큰 간증을 품고 계시던 그 책속의 위대한 진리들을 어머니의 눈을 통해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노력 없이 얻는 유산처럼 제가 몰몬경에서 심오한 가르침을 거저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이 연구와 기도를 전제로 한 성실한 마음과 강한 의지를 가지지 않고서 이 위대한 책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참된 것인지도 간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마음 참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¹

왜 종석인가?

금판에 새겨진 기록을 번역하여 몰몬경을 출현시킨 요셉 스미스는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이 책의 교훈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²고 말했습니다.

사전에서는 종석을 “아치의 중앙에 있는 췌기 모양의 돌로서 각 부분을 단단히 결합시켜 준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정의를 보면, “전체를 지탱하는 중앙의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³

몰몬경은 종석입니다. 왜냐하면 몰몬경은 영원한 원리와 가르침을 한데 묶어 주며 구원의 교리를 완전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몰몬경은 우리의 거룩한 경전 중에서 왕관의 가장 중요한 보석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이유로도 종석이 됩니다. 앞서 모로나이가 언급한 약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사람들이 연구와 기도를 전제로 한 성실한 마음과 강한 의지를 가지지 않고서 이 위대한 책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서모나이는 구약과 신약의 문헌을 통해 모로나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진지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⁴ 물몬경의 참됨을 명백히 증거하여 준다고 하셨듯이, 우리는 그러한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몬경에 대한 강한 간증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⁵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며, 요셉 스미스의 거룩한 사명과,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를 보았다는 것을 영적으로 입증해 줍니다. 또한 물몬경에 대한 확실한 간증이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 역시 물몬경이나 성경과 마찬가지로 참된 경전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과 살아 계신 예언자가 끊임없는 계시를 통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인도한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진리들은 다른 회복된 구원의 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해 줍니다.

물몬경은 어떤 책인가

우리는 물몬경이 어떤 책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인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물몬경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표제지에는 이 책이 예수님 시대를 전후하여 미대륙에 살고 있던 백성들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계명과 예언과 계시의 영에 의해 기록되었느니라 ...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느니라.”

대관장단 제1보좌였던 조지 큐 캐넌(1827~1901)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물몬경은 지리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리적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도시와 여러 지역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교리와 역사적인 사건에 부수되는 것일 뿐입니다.”⁶

그러면 몰몬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메시아와 구세주로서의 그분의 성역을 확실히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니파이의 몰몬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 끝에 있는 자들이여, 이 말에 귀를 기울여 그리스도를 믿으라. 혹 이 말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을진대 이 말을 믿게 되리니,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임이라.”⁷

니파이와 그의 동생 야곱은 이사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강림을 선포했습니다. 니파이는 이사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한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몰몬경은 성경의 진실됨을 확증해 줍니다.⁸ 이것은 “거룩한 경전이 참됨을 세상에”⁹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화와 구원의 충만한 복음의 확립을 예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여행을 위한 원리와 지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몰몬경과 구약전서를 비롯한 모든 인류 역사에서 제시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완전히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다른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기가 없고 약한 귀에 거슬릴 수도 있는 경고입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몰몬경의 백성들이 예언자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망각했을 때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올뵈[인]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¹⁰라고 말했습니다. 몰몬경의 기록과 동쪽 대륙으로부터

온 현재의 성경은, 아빈아다이에 의하면, “이를 지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저들의 임무를 깨닫게”¹¹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몰몬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걸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¹²

경전과 개인의 간증들

영적인 것은 이 성스러운 책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영적인 이해보다 세상적인 지식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이 책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가 이렇게 복잡하고 심오한 책을 신의 도움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시골 젊은이가 이 책의 위대한 진리와 영적 권세를 조작하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거짓으로 꾸민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그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몰몬경에는 구약전서와 신약전서의 가르침에 대한 참조가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위대한 것을 인간의 지혜로써 알 수 없다는 확실한 결론을 논리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몰몬경이 참되다는 사실에 대한 성령의 확인입니다.

모든 경전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몰몬경의 예언자 야곱은 우리를 이렇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함이 없이 예언을 하거나 기록한 선지자가 없느니라”¹³ 시편의 저자는 경전에 대해 말하길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¹⁴라고 했습니다.

몰몬경은 오직 의로운 것을 권합니다. 그런데 왜 이 책에 대한 반감이 야기되어 왔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책이 요셉 스미스가 천사로부터 받은 금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택된 증인들은 이것을 직접 보고 만지기도 했지만 일반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마



금판에 새겨진 기록을 번역하여

몰몬경을 출현시킨 요셉 스미스는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적이고, 이 책의 교훈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

나눔은 “너희
주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 같이 그 번역은
참되도다”라는 말씀으로
친히 물문경을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로 미대륙의 고대 예언자들에 대한 일이라고 주장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세주께서도 물문경의 가치를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니파이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가르침이요,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¹⁵

구세주께서는 더 나아가 물문경에 대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나니”¹⁶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강림에 대한 니파이와 아시아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니파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¹⁷합니다.

저는 영의 증거로부터 오는 확신을 통해 그것들을 실제로 보는 것보다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보다 더 절대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주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 같이 그 번역은 참되도다”¹⁸라는 말씀으로 친히 물문경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의 이해력의 눈을 통해 저의 어머니의 다 떨어진 물문경에서 어머니가 무엇을 보실 수 있었는가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문경의 위대한 진리에 따라 생활하며 보다 강한 간증을 지니고 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우리 종교의 종석인 물문경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써 진리가 굳건히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간증합니다. ■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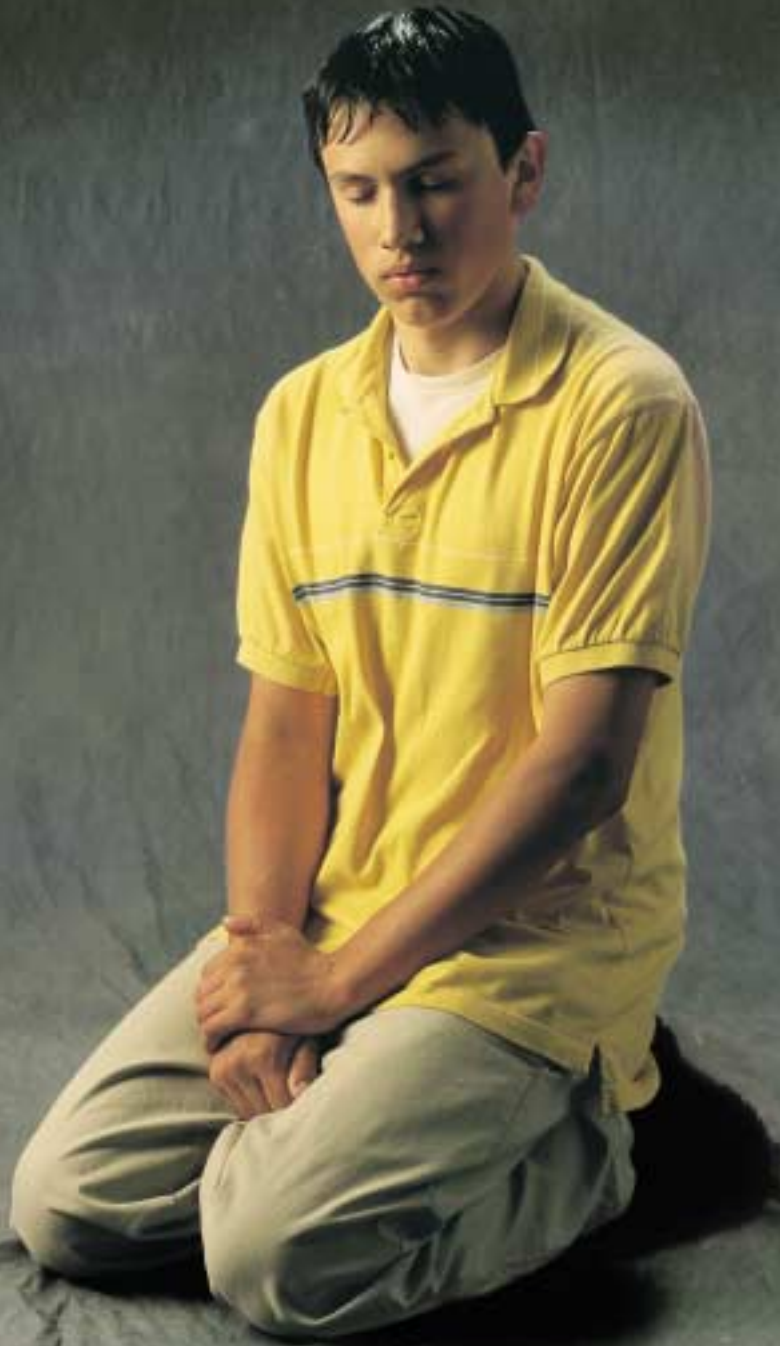
1. 모로나이서 10:4.
2. 물문경 소개.
3.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4판(2000), “keystone”, 961쪽.
4. 모로나이서 10:4 참조.
5. 물문경 표제지.
6. “The Book of Mormon Geography”, *Juvenile Instructor*, 1890년 1월호, 18쪽.
7. 니파이서 33:10.
8. 니파이일서 13:40 참조.
9. 교리와 성약 20:11.
10. 갈라디아서 3:24.
11. 모사이야서 13:30.
12. 모사이야서 13:27~35 참조.
13. 야곱서 7:11.
14. 시편 119:105.
15. 니파이삼서 11:32.
16. 니파이삼서 27:13.
17. 니파이서 25:26.
18. 교리와 성약 17:6.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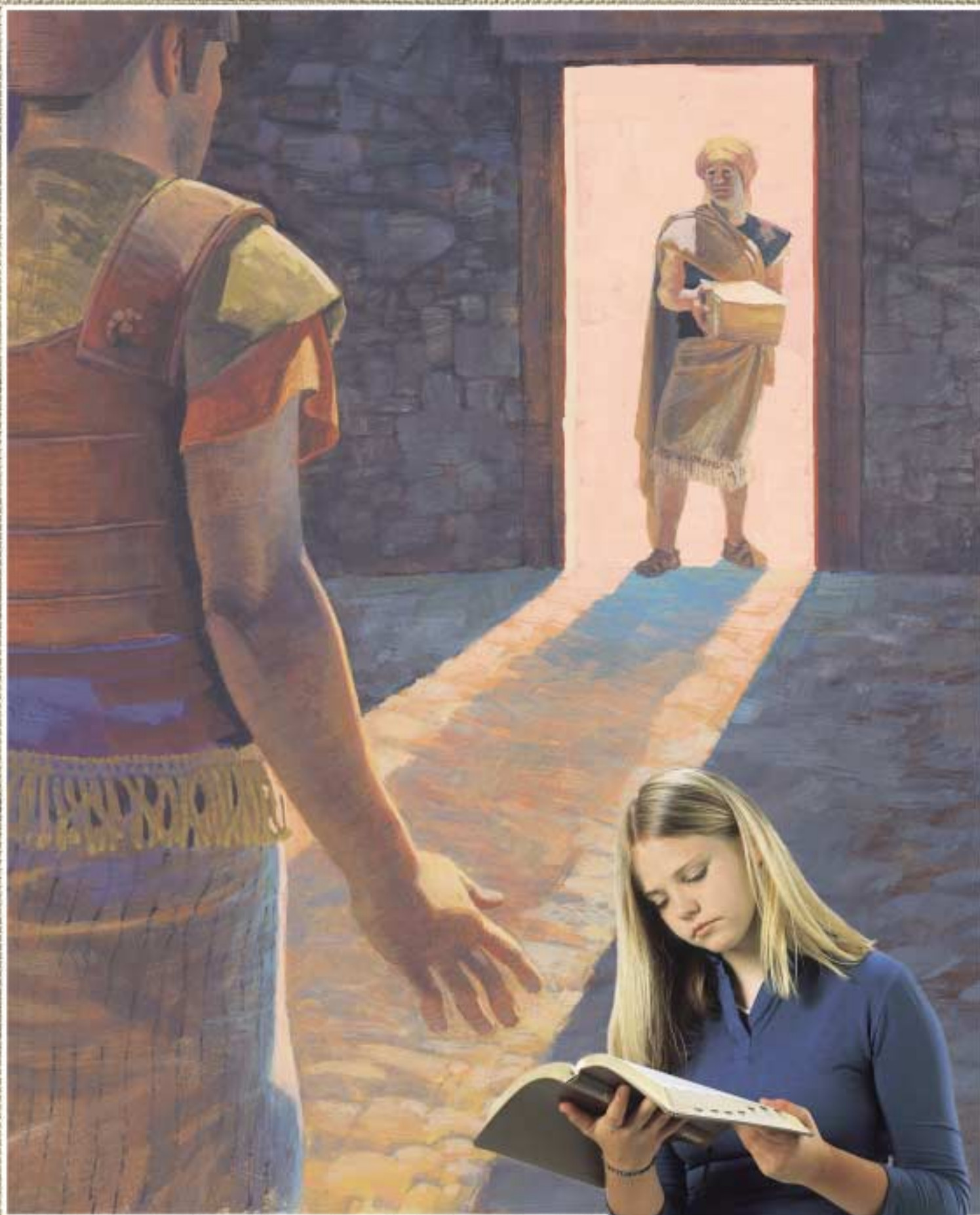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메시지를 전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에게 물문경에 대한 간증과 사랑을 가진 어떤 사람이 그들의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해 그 느낌을 말해 달라고 부탁한다.
2. 가족에게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물문경의 교훈을 따르는 것에 관해 “이 책의 교훈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가 의미한 바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3. 가족 중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파우스트 부대관장이 물문경에 대한 간증을 모친에게서 물려받았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간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공부했지만,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다고 설명한다. 사람이 어떻게 연구와 기도를 통해 물문경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는지 토론한다.
4. 가족에게 물문경의 부제가 무엇인지 묻는다. 그들은 금년도에 물문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자들의 간증을 읽게 될 것이며, 물문경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부제가 붙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큰소리로 니파이서 25장 23, 26절을 읽는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당당하고 용감하라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 가장 높은 곳에 이르십시오
(교리와 성약 19:38 참조)



훌륭한 생활 방식

“열심히 구하며 항상 기도하며 믿으라. 만일 올바르게 행하며
너희가 서로 맺은 성약을 기억하면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리라.”(교리와 성약 90:24)

교 회 잡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에게 2004년 청남 및 청녀 상호 향상 모임 주제인 교리와 성약 90편 24절에 관한 견해를 부탁했다.

이 구절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구해라”는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페리 장로: 주님은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구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답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중의 하나는 경전이며, 열심히 찾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과 신앙으로 답이 분명해질 때까지 그것을 읽고 또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종종 물문경에 있는 니파이일서 3~4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합니다. 리하이는 낫쇠판을 알려진 기록을 레이벤에게서 얻어 오도록 아들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기록은 중요했으며, 사람들이 불신앙에 빠지지



니파이는 신앙으로
낫쇠판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신앙을
갖고 행한다면, 그들은
그들을 인도해 줄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않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리하이의 아들들은 첫 번째 시도에서, 기록을 구해 오는 일을 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제비 뽑기를 했으며, 레이벤이 뽑혔습니다. 그가 레이벤에게 가서 기록을 달라고 말하자, 레이벤은 화가 나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만일 젊은이들이 경전 공부를 운에 맡긴다면, 즉 상호 향상 모임, 세미나리 혹은 주일학교 공과에서 그때그때 배운다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공부할 때 오는 깊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지식과 같은 중요한 보물을 얻는 일을 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리하이의 아들들이 다음으로 시도한 방법은 낫쇠판을 세상적인 재물을 이용하여 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레이벤은 종을 시켜 그들을 쫓아가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은 재물을 남겨 두고 가까스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세상적인 것을 통해 행복을 구하라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거나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늘 세상적인 아이디어들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조만간 그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니파이의 기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앙으로 구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을 하고 나았을 때, 그는 영의 인도를 받아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으며 커다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경전을 얻음으로써, 리하이의 가족은 그들을 인도하는 거룩한 경전을 가지고 광야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신앙을 갖고 행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해 줄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만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까?

페리 장로: 진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내키지 않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온 정성을 다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의 속삭임을 느낄 수 있도록 계명을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합당하게 되는 것은 열심히 한다는 것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유용한 어떤 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페리 장로: 경전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침을 줍니다. 그것은 예언자에 의해 우리에게 계시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전은 다른 시대와 계절과 연도에 계시된 것으로서, 우리에게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갖게 하는 훌륭한 기회를 주며, 진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그것을 정규적으로 공부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위한 모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이 어떻게 축복을 가져다주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절의 다음 부분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페리 장로: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것을 큰소리로 표현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하루 중 여러분이 행하고 싶은 일정에서 인도와 지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훌륭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주일, 24시간” 내내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해병이었을 때 길고 힘든 행군을 한 후 부대에 돌아와 경험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쳐 있었으며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습니다. 취사병들은 저녁 식사 때까지 우리의 허기를 면하게 하려고 치킨 샐러드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맛이 있어 보였습니다. 친구와 저는 식사를 하기 전에 늘 하듯이 잠시 음식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동안 다른 병사들은 즉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느라 아직 음식을 먹지 않은 우리 두 명을 제외한 모든 병사들은 심한 복통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도가 것처럼 극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응답은 옳은 것에 대해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으로 옵니다. 저는 인생에서 많은 경우 기도로 인해 위안과 확신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또한 감사드리는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참으로 많은 기회와

한 친구와 저는 미 해병으로 있을 때, 식사를 하기 전 늘 음식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동안 다른 병사들을 즉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훌륭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님은 “일주일, 24시간” 내내 거기에 계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키울 수 있습니까?

페리 장로: 저는 대개의 경우 그것이 훌륭한 부모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오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도를 매일의 생활에서 한 부분이 되게 할 때, 그들은 주님께 다가가는 것에 대해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자녀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위안과 습관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고를 주시겠습니까?

페리 장로: 그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줍니다. 저는 기도하는 습관은 훌륭한 신권 지도자와, 상호 향상 모임 지도자와 청남 청녀 지도자들의 인도에 의해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하지 않던 어렸을 때의 생활과 그렇게 할 수 있는 지금의 격차를 좁혀주고 앞으로 전진하게 해 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페리 장로: 저는 항상 믿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제 인생의 처음 18년 동안 저의 감독이셨던 훌륭한 부친이 계셨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었으며,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신권의 부름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 모친은 늘 강한 믿음을 갖고 계셨으며 자신의 간증에 의지했습니다. 제 부모의 믿음은 제게 믿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했으며 그것은 또한 제 자신의 간증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페리 장로: 우리는 모두 자신의 간증을 얻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범은 간증을 얻기 시작하는 데 훌륭한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누군가가 엄숙한 간증을 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인해 우리를 이끌어 주는 자연스러운 힘이 작용합니다.

계명에 따라 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율법을 알아야 하며 그것이 효력이 있고 축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7)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자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후에 내가 복음에 대해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저는 그것을 듣고 평가하고 기도하는 일에 민감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증이 번개처럼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증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왕국에서 봉사할 기회를 갖고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보면서, 제 간증은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다른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페리 장로: 성찬을 취하는 일의 가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군 복무를 할 때 있었던 다른 경험이 생각납니다. 저는 한 동안 다른 부대와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군 복무 동안 우리는 매주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때로 성찬물은 수통컵으로 전달되었으며 빵은 군용 휴대 식량에 들어 있는 비스킷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성찬을 취했습니다. 우리와 떨어져 있어 오랫동안 성찬을 취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친구들은 성찬을 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말일성도 친구들을 찾아야 하며, 매주 일요일

주님과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찬은 개인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합당하게 생활할 경우, 즉 그들이 지켜야 할 부분을 지킬 경우, 주님은 그들이 간구하는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는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페리 장로: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할 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더 감사하게 됩니다. 인생의 각 시기에는 어려운 단계가 있으나,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갈 때, 여러분은 교회의 가르침에 따름으로써,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옳은 일을 할 때 그 안에는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오지 않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만족을 가져다줍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생활할 때, 다른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 가게 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계획한 것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훌륭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은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오는 비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들은

군 복무 동안 우리는
매주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때로
성찬물은 수통컵으로
전달되었으며 빵은
군용 휴대 식량에
들어 있는
비스킷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성찬을 취했습니다.
성찬을 취하는 일의
가치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페리 장로: 저는 첫 번째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지만 제 간증을 흔들려 놓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제 길에 머물러 있다면 인생에서의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극에도 불구하고 성취는 오며, 그 성취는 여러분에게 큰 만족을 줄 것입니다. 신앙으로 견디는 것은 여러분이 영의 인도를 더 가까이 받게 하는 경험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구하고 항상 기도하며 믿으”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주님께에서 돌아설 때, 자동적으로 영을 따르는 능력이 저하되고 인생의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때 그들은 번성하고, 발전하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계획에 따라 인생의 좋은 일들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원한 세상에서 충실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 때 커다란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위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한다면**

약속이 언제 성취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페리 장로: 우리가 지상에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내, 끈기, 그리고 의로운 생활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결과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의로운 방법으로 생활할 경우, 여러분은 훌륭한 생활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리와 성약 90편 24절에 있는 주님의 권고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어떤 제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페리 장로: 말씀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약속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지 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리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훌륭한 젊은이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위대하고, 흥분되고, 만족스런 삶을 살았으며 이 교회의 모든 젊은이들도 그같은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학교에서 항상 우등생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농구를 아주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저는 고등학교 때, 그저 평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너무나 멋지고,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그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날들이 다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으며, 항상 저를 인도하시고 영감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행복한 마음과, 다음날 다시 노력하겠다는 열정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훌륭한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

리처드 엠 롬니와 자넷 토마스가 이 인터뷰를 했다.





구하며, 기도하며, 믿으라

다음 내용은 본부 청남 및 청년 회장단이
금년도 상호 향상 모임 주제에 관해 말씀한 것이다.



가장 관대한 약속

교리와 성약 90편 24절에는 주님의 가장 관대한 약속 중 하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 조건을 달성할 때에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아직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여러분은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할 수 있다]”는 말의 진의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약속이 참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평생토록 주님을 신뢰하는 일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참되며, 여러분이 근면과, 기도하는 마음과, 신앙과, 순종을 통해, 사도 베드로가 소위 구세주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베드로후서 1:4)이라고 한 모든 축복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본부 청남 회장단
에프 앨빈 하몬드 장로(가운데)
린 지 로빈스 장로(왼쪽)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오른쪽)

2004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열심히 구하며
항상 기도하며 믿으라.
만일 올바르게 행하며
너희가 서로 맺은
성약을 기억하면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리라.”
(교리와 성약 90:24)



영적인 보호를 위한 공식

여기 영적인 보호와 성공을 위한 공식이 있습니다. “열심히 구하며 항상 기도하며 믿으라.” 이 공식은 모사이야의 아들들을 강화했으며(앨마서 17:2~3 참조) 여러분을 위한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하거나 활동을 계획할 때 이 주제를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신은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이 공식을 시험해 보십시오.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본부 청년 회장단
수잔 더블류 태너(중앙)
줄리 비 벅(왼쪽)
일레인 에스 돌튼(오른쪽)

전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상호 향상 모임 주제가 그들에게 의미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부지런히 구하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지식을 구하고, 도움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위대한 축복을 받고 영생을 상속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맺은 모든 성약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프로스코우린, 16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방부
블라디보스토크 제1지부

이 교회는 “열심히 구하”기로 결심했던 한 소년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모범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 모두를 도와 주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탐구하는 일에 두고 경전을 상고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카일 커벨로, 17세
오클라호마 털사 스테이크 쟁크스 와드

열심히 구하는 일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할 때면, 저는 도움을 얻기 위해 복음의 기본 원리들을 살펴봅니다. 다음에 또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될 때를 대비하여 그것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해 두기 위해서입니다.

멜라니 그랜트, 16세
미시간 블룸필드 힐스 스테이크
월드 레이크 와드

피즐은 제 취미입니다. 그것을 맞추는 저의 전략은 한 번에 한 조각씩 제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마지막 조각을 제자리에 놓을 때까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복음에 중심을 둔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의 길을 찾고,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모든

여러분도 말씀과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
생활에서 금년도 상호
향상 모임 주제를
활용함으로써 그것에
대해 알게 될 때, 그
주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것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어야 합니다.

잉 린 리, 19세
대만 타이페이 웨스트 스테이크
슈양 호 제1와드

이 구절을 읽을 때, 저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인해 제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보여 주는 것도 저에게 중요합니다.

사라 호어, 12세
영국 리버풀 스테이크 리버풀 와드

항상 기도하라

제 막내 남동생이 일상적인 가족 기도에서 “오늘 하루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다섯 살 된 아이의 입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앉아서 똑똑한 제 동생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아침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개인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더 행복했으며 더 자주 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과 의심은 즉시 응답을 받았으며,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아 민슨, 14세
텍사스 휴스턴 동 스테이크 베이타운 제1와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겨 내도록 인도를 구하고, 경배하고,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 그분의 아들에게 나아와 그분들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폴 브루수엘라스, 17세
알래스카 와실라 스테이크 이글 리버 제3와드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세계 가장 큰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교육을 받는 동안 도움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간구하고 노력할 때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산텔 버거스, 16세
뉴질랜드 오클랜드 헨더슨 스테이크 서니베일 와드

제가 언제 어디에 있든, 행복하든 슬프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기도는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 유혹이 점점 강해지지만, 기도를 통해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 쳉, 15세
대만 후아 리엔 지방부 루 예 지부

믿으라

믿음은 강한 신앙을 얻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믿기 위해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의 도움과 속삭임으로 모든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셸 프레이, 16세
텍사스 루이스빌 스테이크 루이스빌 제2와드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저는 가정 복음 교육을 갈 때 바이올린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방문하는 가족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주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두 가족에게 연주를 해 주었을 때까지, 왜 그런 느낌이 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저활동이었던) 마지막 가족을 방문했을 때 비로소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연주를 하자 그들은 감동을 받았으며, 그 곳에 영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마틴 페레스, 18세
텍사스 오데사 스테이크 미들랜드 제2와드

이 구절의 믿는다는 말은 제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3년 전 건축 공사장 사고로 인해 아버지가 건물 지붕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저는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축복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척추 부상으로 인해 걷지도 못하고 입원을 해야 했던 아버지는, 13일 만에 퇴원하셨습니다. 지금은 부상을 당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시 저는 어렸기 때문에, 금식과 기도가 가져다주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저는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미 쳉, 18세
대만 후아 리엔 지방부 루 예 지부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 날 동안 저는 저녁이 되면 경전 공부와 숙제 중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았던 그 때 저는 숙제를 잠시 미루어 두고,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좀더 정신이 맑을 때 경전을 공부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언제든 영적인 일을 먼저 하고 나면 주님은 나머지 숙제도 제시간에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셸 닐슨, 17세
워싱턴 파스코 스테이크 베이슨 시티 제2와드

올해 우리 학교의 밴드부 단장은 연례 청소년 성전 방문일에 공연을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세 명의 다른 교회 회원과 저는 이 공연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밴드부 단장은 우리 넷이 빠진다면 모든 사람이 준비한 공연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제 친구들과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영은 저에게 성전 여행에 가야 하며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성전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밴드 연습을 하러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좋지 않아 밴드 공연이 연기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갖는다면, 그분은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헤더 토드, 15세
펜실베이니아 윌리엄스포트 스테이크 버워크 와드

가족 중 일부만 회원인 사람으로 대도시에서 성장한 저는 어떻게 마약, 갱단, 혹은 부도덕한 행동을 피할 수 있을지 궁금하게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항상 길을 마련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이나 장애물을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연합하여 만사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첸타우 로크, 18세
펜실베이니아 벨리포지 스테이크 사우스 필라델피아 지부 ■

서/장 이더서 1~15장
 저자 모로나이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후의 연도
 날짜(일부 날짜는 추정임) 주전 2200년

몰몬경

시대 개관

야렛인

- 야렛, 그의 동생, 그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야렛인은 바벨탑이 있던 지역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여행했다.(이더서 1~2장 참조))
- 야렛인들은 배를 만들어 바다 건너 미대륙으로 왔다.(이더서 2~6장 참조)



- 에이키시는 비밀 결사를 조직했다.(이더서 8장 참조)

- 이머는 왕으로 임명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이더서 9:14~22 참조)



- 대기근과 독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했다.(이더서 9:30~35 참조)

- 예언자들은 야렛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더서 11:1~13 참조)



결국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인해 야렛 민족은 멸망했다. 생존자는 코리엔툼오어와 이더뿐이었다.(이더서 13~15장 참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요 가르침



그리스도는 그분의 영체를 야렛의 동생에게 보여 주셨다.(이더서 3~4장 참조)

복음 원리에 대한 말씀들 (24쪽에 있는 도표 참조)

1 2

3 4

성경에 있는 여러 책들

창세기

열왕기하 이사야

600	8	11	29	30
▲	591	588	570	569

제이라헤들라 백성(물레크인)

- 시드기야 왕의 아들, 물레크는 예루살렘에서 도망쳤다. 주님은 그와 그의 백성들을 미대륙으로 인도하셨다. 야벳 민족의 마지막 생존자인 코리안툼오어는 그들과 함께 살다가 죽었다.(롬나이사서 1:14~21; 할라맨서 6:10; 이더서 13:20~21 참조)



- 니파이는 그의 백성들의 세속적인 역사(니파이의 큰 판)와 성스러운 기록(니파이의 작은 판)을 만들어 보관했다. 그는 대대로 그 판들을 전하라고 명했다.(니파이일서 19:1~6 참조)

- 주님은 리하이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다는 것을 알려 주셨다.(열왕기하 25장; 니파이일서 1:4 참조)



- 주님은 니파이에게 배를 지으라고 명하셨다. 가족들은 바다를 건너 미대륙에 도착했다.(니파이일서 17~18장 참조)
- 리하이의 가족 중 의로웠던 니파이 백성들은 사약했던 레이맨 백성들로부터 분리되었다.(니파이일서 5:1~7 참조)



- 리하이는 그의 후손들을 권고하고 축복한 후에 세상을 떠났다.(니파이일서 1~4장 참조)

리하이의 가족

- 예루살렘에 있던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니파이일서 1:4 참조)
- 주님은 리하이에게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다. 그들은 광야로 떠났다.(니파이일서 2:1~6 참조)
- 리하이의 아들들은 낚시판을 얻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니파이일서 3~4장 참조)
- 이스마엘과 그의 가족들이 새로운 땅으로 여행하는 리하이의 가족들에게 합류했다.(니파이일서 7: 16:7~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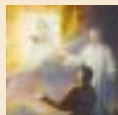
- 주님은 리하이에게 여행을 인도해 줄 낚시로 된 공인 방향구(리아호나)를 주셨다.(니파이일서 16:9~16 참조)

- 리하이와 그의 가족은 8년을 여행한 끝에 해변에 도착했다.(니파이일서 17:1~6 참조)



리하이는 생명 나무의 시험을 보았다.(니파이일서 8장 참조)

리하이는 메시아에 관해 예언했다.(니파이일서 10:3~15 참조)



니파이는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에 대해 배웠다.(니파이일서 11~12장 참조)



니파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했다.(니파이일서 19장 참조)



리하이는 아람에게 거룩하신 메시아에 대해 가르쳤다.(니파이일서 2장 참조)

니파이와 아람은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고 예언했다.(니파이일서 6~10장 참조)



5 6 8
7

10 12
9 11

13

14 16
15 17

서	야곱서 1~7장	이노서서 1	예이롬서 1	욘나이서 1:1~22, 26~29			
저자	야곱(니파이의 동생)	이노스	예이롬	욘나이	애메이론	케미시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의 연도	40	55	179	200	238	282	320
날짜	주전 559년	544	420	399	361	317	279

제이라헤들라 백성(둘레크인)



● 니파이 백성들은 레이맨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려 했으나 실패했다.(이노서서 1:20 참조)

● 니파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다. 많은 예언자들이 회개를 외쳤다. 이노스는 그의 아들 예이롬에게 작은 판을 넘겨주고 죽었다.(이노서서 1:22~27; 예이롬서 1:1~2 참조)

● 여러 번의 전쟁과 평화를 겪은 후에, 욘나이는 그의 아들 애메이론에게 판을 물려주었다.(욘나이서 1:1~3 참조)

● 야곱은 반 그리스도인인 시림에 대항하여 그를 논술로 제압했다.(야곱서 7:1~23 참조)

● 니파이 백성들은 회개했으며 전쟁에서 레이맨인들을 거둬 물리쳤다. (예이롬서 1:3~13 참조)

● 사악한 많은 니파이인들이 멸망 당했다. 애메이론은 그의 동생 케미시에게 판을 넘겨주었다.(욘나이서 1:4~8 참조)

니파이 백성(니파이인)

● 니파이는 동생 야곱에게 판을 넘겨주고 죽었다.(야곱서 1:1~4 참조)

● 야곱은 그의 아들 이노스에게 판을 물려주고 죽었다.(야곱서 7:27 참조)

● 예이롬은 판을 그의 아들 욘나이에게 물려주고 죽었다.(예이롬서 1:14~15 참조)

● 케미시는 기록을 그의 아들 아빈아돔에게 넘겨주었다.(욘나이서 1:9 참조)



레이맨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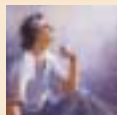
● 니파이인과 레이맨인들 사이에 전쟁과 다툼이 시작되었다.(니파이이서 5:34 참조)

● 니파이 백성들과 레이맨인들 사이에 많은 전쟁과 분쟁이 있었다.(예이롬서 1:8~13 참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요 가르침

니파이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자세하게 설명했다.(니파이이서 31~32장 참조)



야곱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는 것에 대해 가르쳤다.(야곱서 4장 참조)

복음 원리

(24쪽에 있는 도표 참조)



성경에 있는 책들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아비아돔	아멜레카이	모시아아서 9~10장 몰몬	욘나아서 1:23~25, 30 아멜레카이	몰몬의 말씀 몰몬	모시아아서 11~18장 몰몬
		412	421	439	452
		187	178	160	147
		▲	▲	▲	▲

니파이인



● 모시아아는 제이라헤물라 백성(몰레크인)을 발견했다. 모시아아는 제이라헤물라 땅에서 그들의 왕이 되었다. (욘나아서 1:12~19 참조)

● 주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모시아아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과 함께 북쪽으로 피했다. (욘나아서 1:12~13; 열마서 22:27~34 참조)

● 판들은 아비아돔에게서 그의 아들 아멜레카이에게 전해졌다. (욘나아서 1:10~12 참조)

● 큰 무리의 니파이인들은 제이라헤물라를 떠나 니파이 땅으로 향했다. 격성한 내분을 겪은 후, 50명만이 제이라헤물라로 돌아왔다. (욘나아서 1:27~28; 모시아아서 9:1~2 참조)

● 지니프가 이끄는 또다른 그룹이 니파이 땅으로 돌아갔으며 레이맨인들과 평화롭게 생활하기 시작했다. (모시아아서 9:3~9 참조)



● 레이맨인들이 지니프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켰다. (모시아아서 9:10~15 참조)

● 레이맨인들이 또다시 지니프 백성과 전쟁을 일으켰다. 많은 레이맨인들이 전사했다. (모시아아서 10:1~20 참조)

● 모시아아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베나민이 왕이 되었다. 제이라헤물라에 있는 니파이인과 레이맨인들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었다. (욘나아서 1:23~24 참조)

● 아멜레카이가 베나민 왕에게 작은 판을 넘겨주었다. (욘나아서 1:25, 30; 몰몬의 말씀 1:10 참조)

● 베나민 왕과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제이라헤물라에 평화와 의를 이룩했다. (몰몬의 말씀 1:13~18 참조)

지니프 백성

● 주님은 지니프 백성들을 구해 주셨으며, 니파이 땅에는 다시 평화가 이룩되었다. (모시아아서 9:16~19 참조)

● 지니프는 왕국을 그의 아들 노아에게 넘겨주었다. (모시아아서 10:21~22; 11:1 참조)

● 노아 왕의 제사였던 엘마는 아비아다이의 가르침을 통해 개종하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었다. (모시아아서 18:1~31 참조)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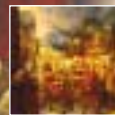
49

50

51

52

53



● 아비아다이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대해 예언했다. (모시아아서 13~15장 참조)

● 엘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다. (모시아아서 18장 참조)



왼쪽부터: 그림: 마이크 말콤, 니파이의 성장; 그림: 클라크 켈리 프라이스, 니파이의 시한; 그림: 클라크 켈리 프라이스, 아꿈이 시련을 받음; 그림: 케리 이 스미스, 니파이 백성의 마지막 전쟁 중 일부; 그림: 소곳 스노우, 아꿈과 이노스; 그림: 로버트 티 버넷, 기도하는 이노스; 그림: 케리 이 스미스, 니파이 백성의 마지막 전쟁 중 일부; 그림: 미네르바 케이 타이저트, 모시아아가 아랫인의 돌판을 해석함; 그림: 아놀드 프리이버그, 노아 왕 앞에 선 아비아다이; 그림: 시시 에이 크리스티슨, 새로운 가정을 찾는 니파이 백성; 그림: 로널드 크로스비, 자신의 간증을 인봉하는 아비아다이; 그림: 미네르바 케이 타이저트, 몰몬의 생에서 침례를 주는 엘마.

서 모사이야서 1~8장; 19~29장

저자 몰몬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의 연도 454

475

478

날짜 주전 145년

124

121

니파이인

● 베냐민 왕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 후, 왕국을 그의 아들 모사이야에게 넘겨주었다. (모사이야서 1~6장 참조)



● 암몬과 다른 15명은 지니프와 그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니파이 땅으로 여행했다. (모사이야서 7:1~7 참조)



레이맨인

엘마의 백성

● 엘마와 그의 백성은 힐렘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번성했다. (모사이야서 23:3~20 참조)

● 주님은 엘마와 그의 백성들에게 도망하라고 경고하셨다. 그들은 새로운 땅에 정착했다. (모사이야서 18:32~34; 23:1~5 참조)

● 43명의 남자로 구성된 한 그룹이 제이라헤물라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들은 24장의 금판, 즉 이더의 판을 가지고 돌아왔다. (모사이야서 8:7~18; 21:25~28 참조)

지니프 백성

● 노아 왕은 살해당했다. 지니프 백성들은 레이맨인들에게 속박되었다. 노아의 아들 림하이가 왕이 되었다. (모사이야서 19:10~29 참조)

● 암몬은 림하이가 이끄는 지니프 백성들을 발견했으며, 그들은 레이맨인들에게 속박되어 있었다. (모사이야서 7:8~16 참조)

● 기드온이 노아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모사이야서 19:1~9; 25:5 참조)

● 림하이 백성들은 그들의 땅에서 레이맨인들을 몰아냈다. (모사이야서 20:8~26 참조)

● 암몬은 림하이 백성들을 이끌고 제이라헤물라 땅으로 돌아갔다. (모사이야서 22장 참조)



● 레이맨인들은 그들을 정복했으나, 림하이의 백성은 주님 앞에서 자신들을 낮추었다. (모사이야서 21:1~22 참조)
● 사악한 노아 왕의 제사들은 광야로 도망쳤으며 레이맨인의 딸들 몇을 납치해갔다. (모사이야서 19:21; 20:1~5 참조)

노아 왕의 제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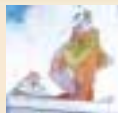
● 레이맨인들은 다시 지니프 백성들을 대적해 전쟁을 일으켰다. (모사이야서 19:6 참조)

● 레이맨인들은 그들의 몇몇 딸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니프 백성과 싸우는 전쟁을 다시 일으켰다. (모사이야서 20:6~7 참조)

● 레이맨인의 군대는 림하이 백성들을 찾으려다 사악한 노아 왕의 제사들을 발견했다. (모사이야서 22:15~16; 23:30~32 참조)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주요 가르침

베냐민 왕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빛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가르쳤다. (모사이야서 2장 참조)



천사는 베냐민 왕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해 준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모사이야서 3장 참조)



베냐민 왕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 (모사이야서 4~5장 참조)

복음 원리

(24쪽에 있는 도표 참조)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성경에 있는 책들

479
120
▲

507
92
▲

508
91
▲

● 모사이아 왕의 백성, 림하이 왕, 그리고 엘마는 제이라헤물라 땅에 하나의 니파이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단합했다. 엘마는 온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했다.(모사이아서 25장 참조)



●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에 의해 죄를 짓게 되었다. 엘마는 주님으로부터 범죄자들을 재판하고 교회에 질서를 세우는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모사이아서 26장 참조)

● 천사가 엘마 이세와 모사이아의 아들들에게 나타나 회개하고 교회에 대한 박해를 그치고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입힌 영적인 손상을 배상하기 시작했다.(모사이아서 27장 참조)

● 모사이아 왕은 이더서를 번역하여 그것을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다. (모사이아서 28:10~19 참조)

● 모사이아 왕은 그의 아들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레이맨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을 승낙했다. 그들은 14년 동안 선교 사업을 했다. (모사이아서 28:1~9 참조)



● 엘마와 그의 백성은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를 드렸다.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그들은 탈출하여 제이라헤물라 땅에 도착했다. (모사이아서 24:10~25 참조)

● 모사이아 왕은 모든 기록을 엘마 이세에게 넘겨주었다.(모사이아서 28:20 참조)

● 모사이아 왕은 판사들이 백성들을 통치할 것을 제안했다. 백성들은 동의했으며 엘마 이세가 초대 대판사와 교회 업무를 관장하는 대제사로 선임되었다.(모사이아서 29장 참조)

● 백성들은 판사 치세에 따라 연도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엘마와 모사이아 왕이 세상을 떠났다.(모사이아서 29:45~47; 엘마서 1:1 참조)



● 엘마와 그의 백성은 레이맨인들의 속박을 받게 되었다.(모사이아서 23:29, 36~39; 24:1~9 참조)

● 레이맨인의 군대는 니파이 땅을 찾으려다가 엘마와 그의 백성들을 발견했다.(모사이아서 23:21~28, 35 참조)



● 제사들과 그 가족들은 레이맨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모사이아서 23:33~35, 39 참조)

● 엘마는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와 용서에 대해 알았다. (모사이아서 26장 참조)



● 엘마 이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모사이아서 27장 참조)

물몬경 시대 개관

복음 원리에 관한 성구들

참조 성구	원리	참조 성구	원리
1 이더서 4:11~12	모든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며 우리에게 선을 행하게 한다.	38 니파이이사서 32:9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2 이더서 8:22	어떤 나라든 권력과 재물을 얻기 위해 비밀 결사를 지지하면, 그것이 온 나라에 퍼지기 전에 멸망한다.	39 야곱서 1:17~19	우리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명을 받아야 한다.
3 이더서 12:6	신앙은 보이지 않으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는 신앙의 시련을 겪은 후에야 증거를 얻는다.	40 야곱서 2:18~19	우리는 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해야 한다.
4 이더서 12:27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가질 때, 그분은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신다.	41 야곱서 2:35	못된 본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대한 신앙을 잃게 한다.
5 니파이이사서 1:1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을 수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42 야곱서 4:7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심은, 오직 그분의 자비로 우리가 그분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6 니파이이사서 1:20	주님의 친절한 자비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 모두에게 베풀어진다.	43 야곱서 4:8~10	우리는 주께 권고하려 하지 말고 그분의 훈계에 따라야 한다.
7 니파이이사서 2:20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44 야곱서 4:14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정도를 지나쳐 바라보기 때문이다.
8 니파이이사서 3:7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신다.	45 야곱서 5:65~75	말일에 주님은 그분의 포도원의 나쁜 부분을 깨끗하게 하여 좋은 것이 잘 자랄 수 있게 하실 것이다.
9 니파이이사서 8:10~32	생명 나무의 열매는 다른 어떤 열매보다도 더 먹음직스럽다.	46 야곱서 7:11	모든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예언했다.
10 니파이이사서 10:17~19	하나님의 오묘하신 심리는 열심히 구하는 자들에게 성신의 권세로써 밝혀진다.	47 이노서서 1:5~8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 온전해지고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다.
11 니파이이사서 14:10	세상에는 두 개의 교회, 즉 하나님의 어린양의 교회와 악마의 교회가 있을 뿐이다.	48 율나서서 1:26	우리는 구세주께 우리의 영육을 드리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견디야 한다.
12 니파이이사서 17:33~35	주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보시며,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49 모사이이사서 10:17	자녀들에게 미워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정경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3 니파이이사서 22:26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의로움은 사탄을 무력하게 만든다.	50 물몬의 말씀 1:7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이유를 모를 때에라도 그것을 행해야 한다.
14 니파이이사서 2:11	범사에는 서로 상대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	51 모사이이사서 15:11~13	그리스도의 자손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구속을 통해 죄 사함을 받을 날을 고대하는 사람들이다.
15 니파이이사서 2:16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도록 하셨다.	52 모사이이사서 16:8	사망의 쓰는 듯한 고통은 그리스도 안에 삼켜졌다.
16 니파이이사서 2:25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이다.	53 모사이이사서 18:9~10	언제나 위안을 주고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소망은 침례를 받기 위한 준비의 일부이다.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성약을 맺었다는 것을 그분 앞에 증거하는 것이다.
17 니파이이사서 2:27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나 악마의 권세를 통해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다.	54 모사이이사서 2:17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18 니파이이사서 9:13~15	부활의 날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나 의로움에 대한 완전한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55 모사이이사서 2:21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19 니파이이사서 9:20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56 모사이이사서 2:32~33, 36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으면서 악령을 즐겨 따르는 자들은 그 부응으로 영원한 벌을 받는다.
20 니파이이사서 9:29	우리가 하나님의 권에 따르는지를 아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57 모사이이사서 3:17	그리스도는 인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며 방법이다.
21 니파이이사서 9:39	마음이 육육에 사로잡히는 것은 죽음이며,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영생이다.	58 모사이이사서 3:19	육으로 난 인간은 성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을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적이 된다.
22 니파이이사서 9:51	우리는 헛된 것을 위하여 돈을 낭비하거나 만족하지 못할 것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	59 모사이이사서 4:3	죄 사함은 양심의 평안을 가져온다.
23 니파이이사서 25:23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후에 자비로 구원을 받게 된다.	60 모사이이사서 4:27	만사는 자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24 니파이이사서 25:29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61 모사이이사서 4:30	우리는 생각과 언동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멸망할 것이다.
25 니파이이사서 26:11	주님의 영이 늘 사람과 함께하시는 것은 아니다.	62 모사이이사서 5:2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갖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고 계속하여 선행을 하게 될 것이다.
26 니파이이사서 26:24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63 모사이이사서 21:13~15	주님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실 것이다.
27 니파이이사서 26:28	만민에게 선하심을 취할 권세가 주어져 있음에, 금지당한 자가 없다.	64 모사이이사서 7:29~33	주님은 그분의 백성이 범법하는 날에 그들을 구제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며 주님을 의지하고 정성과 부지런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속박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28 니파이이사서 26:33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같으며 그분은 만민에게 그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하신다.	65 모사이이사서 8:20~21	인간의 총명은 얼마나 우매하며 우둔한가.
29 니파이이사서 28:7~8	"먹고 마시고 즐기라. 우리는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라 우리에게 좋으리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이다.	66 모사이이사서 24:14~15	우리는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도록 해 주신 주님의 뜻에 즐거운 마음으로 침울성 있게 복종해야 한다.
30 니파이이사서 28:21	악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달콤한 말로 꾀어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되리라고 하면서 서서히 그들을 자욕으로 인도한다.	67 모사이이사서 26:29~30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자주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31 니파이이사서 28:30	주님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그분의 자녀들을 가르치신다.	68 모사이이사서 27:25~26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하고, 타락한 것이 의로운 것이 되며, 하늘 나라를 상속 받기 위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32 니파이이사서 29:1~2	주님은 말일에 그분의 백성을 불러모으는 기호로 물몬경을 사용하실 것이다.	69 모사이이사서 27:31	마지막 날 모든 무릎이 절하며 모든 허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심판은 공평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33 니파이이사서 31:6~13	구세주께서는 의를 이루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으며,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될 것이다.	70 모사이이사서 27:36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속주에 대한 자식을 전하는 데 있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
34 니파이이사서 31:17	회개와 침례 이후에 성신에 의한 죄 사함이 온다.		
35 니파이이사서 31:20	그리스도를 믿는 군간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킨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36 니파이이사서 32:3~5	성신은 우리에게 해야 할 모든 일을 보여 주신다.		
37 니파이이사서 32:8	영은 기도하도록 가르친다.		

일상 생활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보니 디 파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만일 제가 이 교회의 모든 여성들을 위해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들 모두가 일상 생활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껴 보았으며, 그 사랑에 대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낌”,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95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비로우신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고린도전서 2:9: “...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

니파이서 1:15: “주님께서 나의 영육을 지옥에서 구속하시 내가 주의 영광을 보았고 영원토록 내가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김을 보았느니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든 덕과 모든 선함과 모든 훌륭한 성품과 의를 행하고자 하는 모든 충실함의 뿌리입니다. ... 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들께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랑이 시들 때마다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빛나는 크고 영원한 사랑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분 아들의 사랑이 임재할 것입니다.”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성도의 벗, 1996년 12월호, 8쪽)

니파이서 11:22~23: “... 사랑의 마음을 두루 적셔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에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것이오니이다 ...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매일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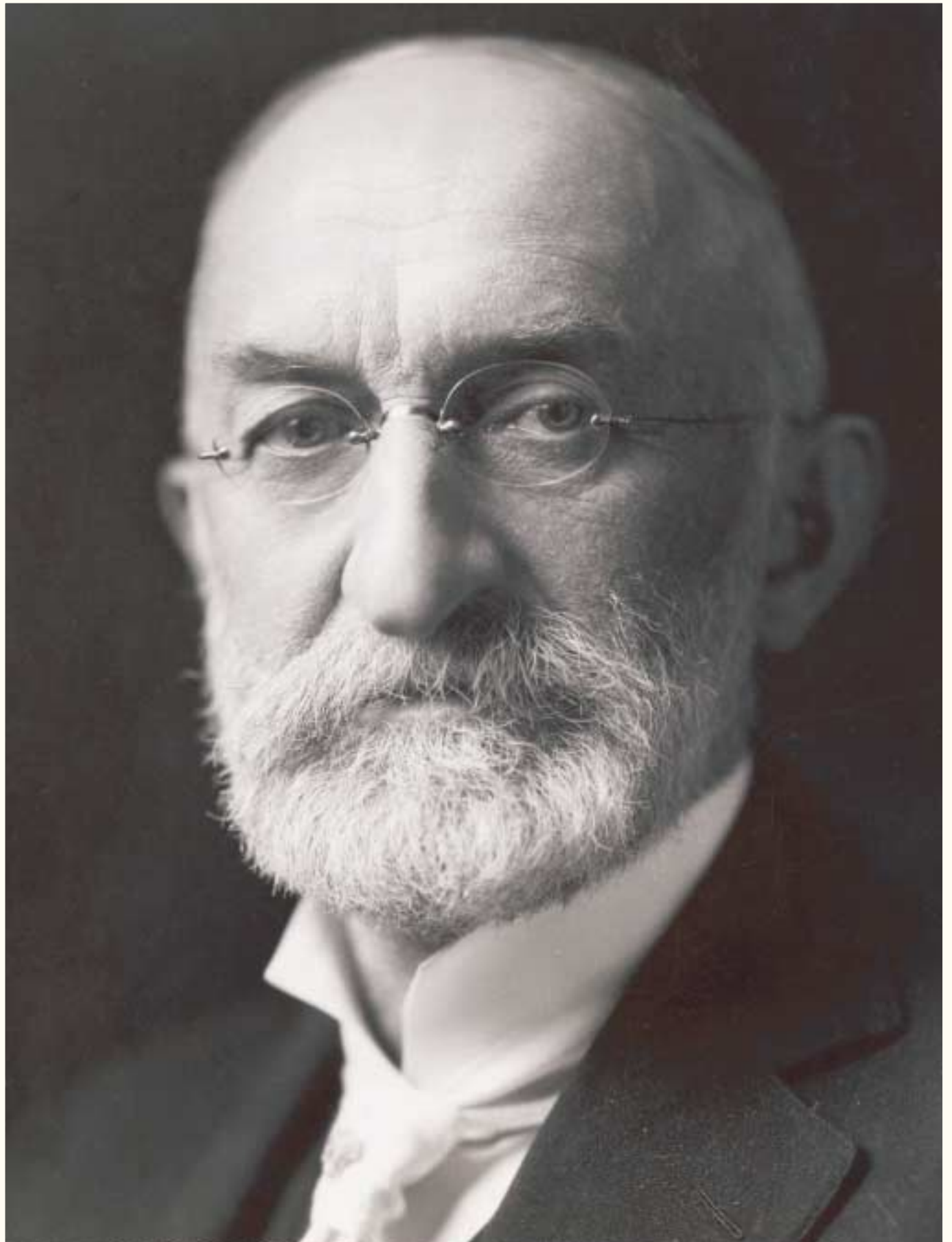
야곱서 3:2: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너희의 마음이 굳건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리라.”

진 알 쿡 장로, 칠십인 정원회: “진정한 감사는 겸손하게 보고, 느끼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분의 손길을 깨닫고, 그렇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신뢰 위에 쌓여진 친숙하고 성스러운 관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시며 연민과 사랑으로 늘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십시오. 느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 은사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애 동안 동기를 부여해 주는 신성한 것이 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분노를 포함한 세속적인 모든 것을 생활에서 걷어내십시오. 계속해서 죄 사유함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걱정을 다스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92~93쪽) ■





히버 제이 그랜트

어려운 시기를 이끌었던 예언자

끈기로 잘 알려진 그랜트 대관장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대공황기와, 제2차 세계 대전을 겪는 동안 교회를 인도하도록 잘 준비된 분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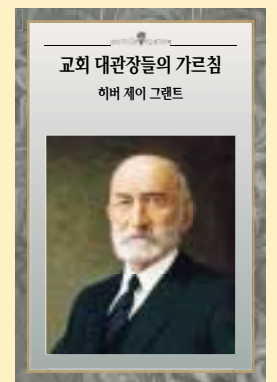
세리 밀스 존슨

1918년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임종할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었던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이 그의 침대 곁에 있었다. 스미스 대관장은 당시 그랜트 회장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형제님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형제님에게 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업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어떤 인간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누가 이 교회를 인도하면 좋을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코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¹

이러한 격려의 말과 함께 495,000명의 교회

회원을 인도할 책임이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에게 주어졌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막 종전되었으며, 사람들은 끔찍하게 파괴된 세계를 재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1918년 가을에 시작된 전염성 독감이 전세계에 창궐했고, 결국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로 인해 그랜트 대관장이 지지를 받아야 했던 1919년 4월 연차 대회는 6월 2일로 연기되었다.²

신장이 185센티미터 이상이나 되었던 그는 지도자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후 26년 반 동안 그랜트 대관장은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봉사했다. 제7대 대관장으로서, 그는 브리감 영을 제외한 역대 어느 대관장보다 오래 봉사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거의 배로 성장하는 가운데 회원 수는 954,000명이 되었으며, 세 개의 새로운 성전을 짓고, 열여섯 개의 선교부를 추가했다. 그랜트 대관장의 인도 하에 교회는 복지 사업을 시작했으며, 가족 역사 기록을 마이크로필름화 하기 시작했고, 주레 태버나클 합창단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랜트 대관장은 최초로 교회의 라디오 방송에서 설교를 했으며, 당시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바꾸어 놓았다.



히버 제이 그랜트의 가르침은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시리즈의 다섯 번째 학습 지도서로서, 2004년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교재로 사용된다.



위: 제데다리아 엠 그랜트.
오른쪽, 위: 레이첼
리지웨이 아이빈스 그랜트,
10세 된 히버 제이
그랜트와 함께. 오른쪽,
아래: 히버 제이 그랜트,
34세. 반대 쪽, 위:
1887년 딸들인 레이첼,
루시, 플로렌스, 에디,
그리고 안나와 함께한 히버
제이 그랜트와 루시
스트링햄 그랜트. 오른쪽:
히버 제이 그랜트의 선교사
부름 카드,
1901~1903년의 기간 중
일본에서 선교 사업을 할 때
사용했음; 일본에서 사용한
최초의 선교사 전도용
소책자, 1908년에 인쇄됨.
맨 오른쪽: 1902년
일본에서의 히버 제이
그랜트.

제데다리아와 레이첼

그랜트 대관장은 그의 부모가 보여 준 모범을 통해 잘 준비되어 있었다. 대관장단에서 브리감 영 대관장의 제2보좌로 봉사한 그의 부친 제데다리아 엠 그랜트는 40세의 나이에, 히버가 태어난 지 겨우 9일째 되던 1856년 11월 22일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부친이 남겨 준 신앙과 의로움의 유산은 히버의 생애 동안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 되었다. 후에 그랜트 대관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그분의 정직과 충실한 노고로부터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³

히버의 모친, 레이첼 리지웨이 아이빈스 그랜트의 영향도 똑같이 강력한 것이었다. 레이첼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 미국 동부 지역의 부호였던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념할 경우 큰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간증을 지키기로 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일전 한 푼 없던 젊은 미망인은 아들의 양육을 위해 샅바느질을 하고 하숙을 쳤다.

그녀는 히버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의 가치를 가르쳤으며, 그들은 함께 어렵게 일해서 근근이 가난한 생계를 꾸려 나갔다. 그렇게 하는 동안, 어머니와 아들은 매우 가깝게 되었다. 그는 나중에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늘 어머니의 크나큰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어머니이자 아버지였으며, 제게 가장 중요한 성실함과 헌신, 사랑, 결심, 그리고 명예에 대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대관장으로 서 있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조언과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사업에 대한 불타는

간증을 따랐기 때문입니다.”⁴

예언자의 영향력

히버의 모친이 그의 생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편, 주님은 그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기 위해 다른 많은 사람들을 그의 주변에 두셨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들 중 하나가 브리감 영(1801~1877) 대관장이었다. 너무 가난해서 썰매를 살 수 없었던 어린 히버는,

지나가는 썰매에 매달려 한두 블록 정도 눈 위를 미끄러져 간 뒤 썰매에서 손을 놓곤 하는 것으로 겨울을 즐겁게 보냈다. 히버가 여섯 살이었을 때, 한번은 영 대관장의 썰매에 매달렸다. 훗날 히버의 이야기에 따르면, 영 대관장은 “썰매를 끄는 튼튼한 말을 아주 좋아했으며, 꽤

빨리 달리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뒤에 매달렸는데 너무나 빨리 미끄러져 갔기 때문에 손을 놓을 수가 없었으며 한참 달리고 나면 너무도 추웠다.”

결국 영 대관장은 히버가 있는 것을 알고는, 기사에게 멈추게 한 뒤, 추위에 떠는

아이를 들소 가족으로 감싸고 나서 누구냐고 물었다. 영 대관장은 그 아이가 제데다리아 엠 그랜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히버의 부친에 대한 그의 사랑을 표현하고 히버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해 주었다. 영 대관장은 히버를 내려놓기 전에 그에게 사무실에 놀러 오라고 초대했다. 영 대관장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된 우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러한 우정에 대해 히버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분을 존중하고 존경할 뿐 아니라, 내 부친의 사랑을 알고 그러한 사랑으로





돌아가는 일이 허락된다면, 아버지에게서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과 비슷한 사랑으로 그 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⁵

젊은 히버의 선택

가난은 히버가 성장하는 동안 늘 따라다녔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돈이 없다는 것은 결코 그를 방해하는 문제가 되지 못했다. 야구공 던지는 것을 배우고 싶었지만 공을 살 돈이 없었던 히버는 어머니가 허숙을 치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 주고 돈을 벌었다. 또한 그는 솔트레이크 극장에 가고 싶지만 표를 살 돈이 없었을 때,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고, 청중들에게 물을 날라다 주는 일자리를 구해 연극을 관람할 수 있었다.⁶

히버가 성장해가면서, 그의 끈기와 인내는 사업을 하는 데 잘 활용되었다. 미 해군 사관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군에 가는 대신 어머니 곁에 머물면서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했다.⁷ 열여섯 살에 학교 교육을 마친 후, 히버는 은행 서기로 취직을 하여 부기를 배웠다. 그의 정직함과, 열심히 일하는 능력,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큰 소망은 곧 그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 주었다. 스무 살이 되었을 때, 그는 시온 세이빙스 은행 및 신용 금고의 보조 회계원이 되었으며, 보험 대리점을 매입했다.⁸

어린 시절의 히버가 겪었던 가난은 그를 동정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제1차 세계 대전의 여파, 대공황기,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는 동안 교회를 인도하도록 준비시켰다.

“악마 선생”을 극복함

젊은이로서, 히버를 괴롭히는 것은 그가 젊었을 때 성역을 베풀기 위해 부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사의 축복에 있는 약속이었다. 그는 이것이 선교사로 봉사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23세가 되어도 선교사의 부름을 받지 못하게 되자 혼란스러워졌다. 이 일로 그는 그의 입장과 교회에 관해 염려하게 되었다. 축복사가 영감을 받지 못한 것일까, 그렇다면, 다른 계시들도 영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의심이 그를 괴롭히는 것인가? 결국 그는 축복사가 실수를 한 것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루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메인 스트리트를 걷고 있을 때, 이러한 생각들이 다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히버는 보도에 멈추어 서서, 마치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큰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악마 선생, 조용하십시오. 나는 교회의 모든 축복사가 축복에서 실수를 하거나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게 되지는 않을 것이요.”

그후로 다시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히버를 괴롭히지 않았다. 얼마 후 그는 스테이크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축복사의 축복이 성취된 것이었다.⁹



사도로 부름 받음

1882년 25세의 나이에 사도로 성임되었을 때, 히버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고 신뢰 받고 있는 것만큼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걱정했다. 애리조나 주에 있던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방문하는 동안, 그는 수행한 사람들을 남겨 두고 혼자서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하고 명상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이 혼자 있는 동안 장막 저편에서 평의회를 갖고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평의회에서는 누가 십이사도 정원회에 생긴 두 공석을 채우느냐에 대해 토의하고 있었다. 히버의 부친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히버의 이름을 거명했다. 그것은 히버의 염려를 해소시켜 주었다. 히버는 이렇게 말했다. “그 시현에서 그 모든 사람들은 ...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그날부터는 성공하건 실패하건 모든 책임은 내가 지어야 했습니다.”¹⁰

가정 생활

그랜트 대관장은 사랑이 많은 남편이며 아버지였다. 한번은 아내가 서로의 결점을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랜트 대관장은 동의했다. 그녀는 한두 가지 히버의 결점을 말하고는 그에게 그녀의 것을 말하라고 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다. “당신에게는 하나도 없소.”¹¹

그랜트 대관장은 열 명의 딸들을 사랑했고 그들과 매우 친했으나, 두 명뿐인 아들이 어렸을 때 죽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계속되는 큰 슬픔이었다.

교회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해 동안 여행을 해야 했던 그랜트 대관장은 가족과 떨어져 있을 때마다 늘 외로움을 느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들은 크게 기뻐하며 축하를 했다. 그의 딸들은 그때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녀를 발 위에 올려놓고 집 주위를 걷곤 했던 아버지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기억했다.¹²

끈기와 유머 감각

그랜트 대관장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갖고 있던 많은 훌륭한 성품 가운데 두 가지 두드러진 특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것은 끈기와 유머 감각이다. 그랜트 대관장은 종종 69번의 시도 끝에 곡식 한 알을 옮기는 데 성공을 거둔 개미의 이야기를 예로 들곤 했다. “이 작은 곤충이 갖고 있는 끈기의 놀라운 교훈은 제 평생에 영감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¹³

그의 끈기에 대한 예는 노래를 배울 때 잘 발휘되었다. 그랜트 대관장이 43세가 되었을 때 그는 그때까지 음을 제대로 맞추어서 노래를 부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잘 불러 보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제게는 아름다운 바리톤 음성을 가진 개인 비서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음정을 맞춰 노래를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 목소리와 끈기만 있으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그를 제 노래 교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날 밤 노래 부르기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연습을 했는데도 저는 여전히 연습한 노래의 한 소절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노래 하나를 오천 번 이상 연습하고서도 대중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를 때 망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육 개월 동안

더 그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지금은 노래 하나를 배우는 데 몇 시간이면 됩니다.”¹⁴

그랜트 대관장의 유머 감각은 노래를 배우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 드러난다. 그는 치과 병원 옆에서 노래 연습을 하고 있을 때의 일에 대해 말했다. 그는 현관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의 노랫소리가 마치 누군가 이를 빼는 사람의 소리와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¹⁵



신앙의 사람

그랜트 대관장은 1918년 11월 23일, 62세의 나이로 제7대 대관장이 되었다. 그리고 88세 되던 1945년 5월 14일에 별세했다. 그는 연단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면 엄격했다. 그는 미국에서 알코올 음료의 제조, 판매 및 유통을 금하는 운동을 지지하고, 실업 수당에 반대하는 강한 설교를 했다. 그러나 종종 그는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유머 감각을 사용하기도 했다. 말일성도의 속성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었다. “저는 몰몬들에게 해가 되는 어떤 안전이 국회에 상정될 때, 성도들은 그 안전이 부결되도록 기도하지만, 부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좌우간 시련에 대해 감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이 말의 일부는 사실입니다. 몰몬은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시련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일성도들은 주님이 축복 가운데만 계신 것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도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¹⁶

무엇보다도,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은 불변하는 신앙의 소유자로서,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선교부를 관리하면서 보낸 세월들을 포함하여, 세계 전역을 여행하면서 간증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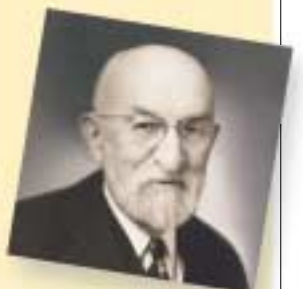
한번은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다. “저는 하나님을 살아 계심을 압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서 복음의 열매를 따왔습니다. 그것을 먹어 보니 그 어떤 것보다도 달았습니다.”¹⁷ 그러나 그랜트 대관장은 단지 맛을 본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이는 그가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이 사람을 지탱시킨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다. ■

세리 밀스 존슨은 유타 오펜 캐스케이드 스테이크 캐스케이드 제4와드 회원이다.

주

1.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히버 제이 그랜트, xx에서 인용.
2. Joseph Fielding Smith, *Essentials in Church History*, 20판(1966), 639쪽 참조.
3. “Work, and Keep Your Promises”, *Improvement Era*, 1900년 1월호, 191쪽.
4. Conference Report, 1934년 4월, 15쪽.
5. Preston Nibley, *The Presidents of the Church*(1941), 271쪽 참조.
6. *The Presidents of the Church*, 273쪽 참조.
7.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xiii 참조.
8. *The Presidents of the Church*, 276~277쪽 참조.
9. Francis M. Gibbons, Heber J. Grant: Man of Steel, *Prophet of God*(1979), 35~36쪽 참조.
10. Conference Report, 1941년 4월, 4~5쪽.
11. Augusta Winters Grant, “My Husband”, *Relief Society Magazine*, 1936년 11월호, 671쪽.
12.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xv 참조.
13. “A Story That Helped Me”, *Juvenile Instructor*, 1913년 6월호, 366쪽.
14.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34쪽에서 인용.
15. “Learning to Sing”, *Improvement Era*, 1900년 10월호, 887쪽 참조.
16. In Brian H. Stuy, 편찬, *Collected Discourses Delivered by President Wilford Woodruff, His Two Counselors, the Twelve Apostles, and Others*, 5 권.(1987~1992), 2:101.
17.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히버 제이 그랜트(2002), 20쪽.

반대 쪽, 왼쪽, 위:
1922년 그랜트 대관장이 최초의 라디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왼쪽, 아래:
데저렛 인더스트리가 그랜트 대관장 재임 중에 시작되었다. 오른쪽:
1925년의 대관장단-제1보좌, 안토니 더블류 아이빈스 부대관장;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 제2보좌, 찰스 더블류 니블리 부대관장. 본 쪽, 위: 그랜트 대관장, 64세. 중앙: 1936년의 대관장단-제1보좌,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 제2보좌, 데이비드 오 맥케이 부대관장. 아래: 그랜트 대관장, 84세





영구 교육 기금

희망의 밝은 빛



영구 교육 기금은 수혜자와 기증자뿐 아니라 교회 전체로서도 축복입니다.

존 케이 카머 장로
관리 책임자
영구 교육 기금부



2001년 3월 31일 연차 대회 신권 모임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한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교회가 영구 교육 기금을 조성할 것이며, 그것은 수만 명에 달하는 유럽 출신 개종자들이 북미대륙 서부 계곡에 있는 성도들의 본진에 합류하도록 도움을 주었던 19세기의 영구 이민 기금의 본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영구 교육 기금은 합당한 귀환 선교사들과 그 외의 젊은 말일성도 성인들이 자신들의 고국에서 훌륭한 직장을 얻는 데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받도록 용지를 해 줄 것입니다. 힝클리 대관장께서는 이런 놀라운 발표를 다음과 같은 권유와 약속으로 끝맺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도록 운명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충실한 자가 땅에서 나는 훌륭한 것들을 먹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영구 교육 기금은 한 예언자가 미리 본 시헌에서 출발하여 강력한 현실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준비시키고, 희망을 키워 주며, 훌륭한 성품과 자립심을 심어 주는 것으로서, 그 모든 것들은 다가올 세대를 축복해 줄 것입니다.

에버토로 빌리메시의 영구 교육 기금부 사진 제공



맨위: 시베르텍은 페루 리마에 있는 훈련 학교에서 정보 기술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학생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위: “제겐 희망은 거의 없었고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영구 교육 기금이 발표된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했으며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이제 저는 웹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찾은 일을 통해 졸업할 때까지 응수금을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필리핀의 미리암 에르퀴자(왼쪽)는 말한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겸손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신앙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¹

기쁨에 가득찬 말일성도들은 모든 곳에서 이 발표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의 필요 사항에 대해 물질적으로 충분한 축복을 받아 왔던 수천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은 빈곤과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교회 젊은이들을 도울 어떤 방법을 고대해 왔습니다. 자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수혜자들은 좋은 직장을 갖게 된 후에 용자금을 상환하여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도움을 누리도록 재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헝클리 대관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신 전체적인 개념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불우한 환경에서 벗어나겠다는 꿈과 소망을 지닌 개발 도상국의 젊은이들은 영구 교육 기금의 의미를 즉시 파악했습니다. 기술과 지식 그리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헝클리 대관장께서는 교육이 발전의 열쇠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영구 교육 기금은 밝은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충실한 두 아들

훌륭한 두 젊은이의 이야기가 영구 교육 기금의 결과를 잘 보여 줍니다. 이 두 사람은 최근에 저개발 국가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충실하게 봉사했습니다. 그 중 한 장로는 귀환한 뒤, 자립과 검소한 생활을 통해 아들의 교육을 위하여 저축을 했던 부모 덕분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다니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와 똑같이 합당하고 충실한 다른 선교사는 귀환했을 당시 떠날 때와 똑같은 빈곤에 직면했습니다.

보다 나은 재정적 상황에 있던 귀환 선교사가 친구의 상황에 안타까워하며 영구 교육 기금 사무실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적인 속삭임에 따라, 그는 부모가 자신의 일 년 치 학비로 준 돈을 영구 교육 기금에 기부했으며 대신 그는 그 해의 자신의 학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분명히 그 젊은이는 자신의 형제와 하나가 됨으로써 구세주와 하나가 되려고 했습니다.(교리와 성약 38:25~27 참조)

관대한 그 젊은이는 헝클리 대관장의 권유에 따랐던 많은 말일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연차 대회에서의 발표가 있는 후로 수십만 명이 그들의 지갑을 열어 십일조와 금식 현금 외에도 교육 기금에 그들이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얻음

“사람이 어떤 노력도 없이 가치 있고 매우 바람직한 것을 얻었다면, 이미

그것에 대해 너무도 많은 것을 지불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파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만큼의 성금을 보내 주었습니다. 기금은 단시간에 커져 상당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기적입니다!” 핑클리 대관장께서는 거듭해서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영구 교육 기금에 관한 발표가 있는 지 채 이 년도 되지 않아 빈곤이라는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던 대부분의 지역에 이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습니다. 10,000건 이상의 용자가 승인되었으며, 용자 신청이 영구 교육 기금 사무실에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습니다. 용자금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들의 고국에서 필요한 다양한 직업 및 전문 기술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남미 대륙의 한 국가에서 보내온 최근의 용자 신청들은 다음과 같은 직업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동차 수리공, 은행원, 자격증을 지닌 소프트웨어 시스템 엔지니어, 의류 제조업자, 컴퓨터 유지 보수 기술자,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전자 기술자, 환경 기술자, 미용사, 호텔 관리자, 마케팅 및 판매 기술자, 천연가스 기술자, 간호사, 영양사, 병리학 실험실 기술자, 웹 기술자

등입니다. 이러한 교육적 목표들은 회원들에게 구체적인 직업을 갖도록 준비시켜 준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을 발전시킴

이런 노력이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그것이 장래에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만 해도 놀라운 것입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도자들을 구하는

영구 교육 기금에 관한 현황

• 영구 교육 기금은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과, 다른 총관리 직원 및 본부 보조 조직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관리를 받는다.

• 영구 교육 기금은 기부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데, 대부분은 부유하기보다는 평범한 교회 회원들이 기부한 것이다. 모든 기부금은 교육 용자금으로 직접 적립되며, 한 푼의 돈도 관리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 기금의 원금에서 나오는 이자만을 용자금으로 사용한다.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계속해서 용자금을 생성한다.

• 9,500 건 이상의 용자가 승인되었다.

• 11개의 국제 지역에서 프로그램이 완전히 시행되고 있으며, 거기에는 북미 지역 밖에 살고 있는 120만 명의 말일성도 젊은이들의 85 퍼센트가 포함되어 있다. 6개의 국제 지역(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 수혜자의 평균 연령은 26세이다. 약 55 퍼센트가 젊은 형제들이다(85 퍼센트가 귀환 선교사이다). 젊은 자매는 45 퍼센트이다.(25 퍼센트가 귀환 선교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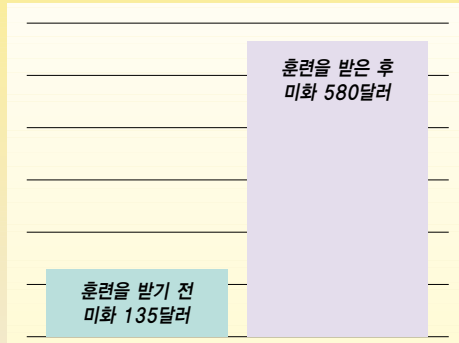
• 좋은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1년 평균 비용은 미화 800 달러이다. 평균적인 훈련 프로그램 기간은 2.2년이다.

• 각 수혜자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 예산 계획과 재정 관리, 그리고 다른 기술 및 성공에 필요한 태도를 향상시키는 훈련을 받는다. 이 과정을 거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영구 교육 기금의 용자 없이도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다.

• 대부분의 용자는 지역에서 취업 기회에 대해 준비하는 직업 훈련이나 기술적인

훈련을 위한 것이다.

• 용자는 일반적으로 수업료, 책값, 요금에만 사용된다.



수혜자들이 직업 훈련을 받기 전후의 월평균 수입



선교 사업에서 귀환한
직후부터 직접 생활비를
벌어 온 알드리
아마릴로(위와 아래)는
5년제 기계 공학
프로그램의 마지막 2년을
마치는 동안 페루 리마의
한 차고 한 칸에 지어진
조그만 방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위해 영구 교육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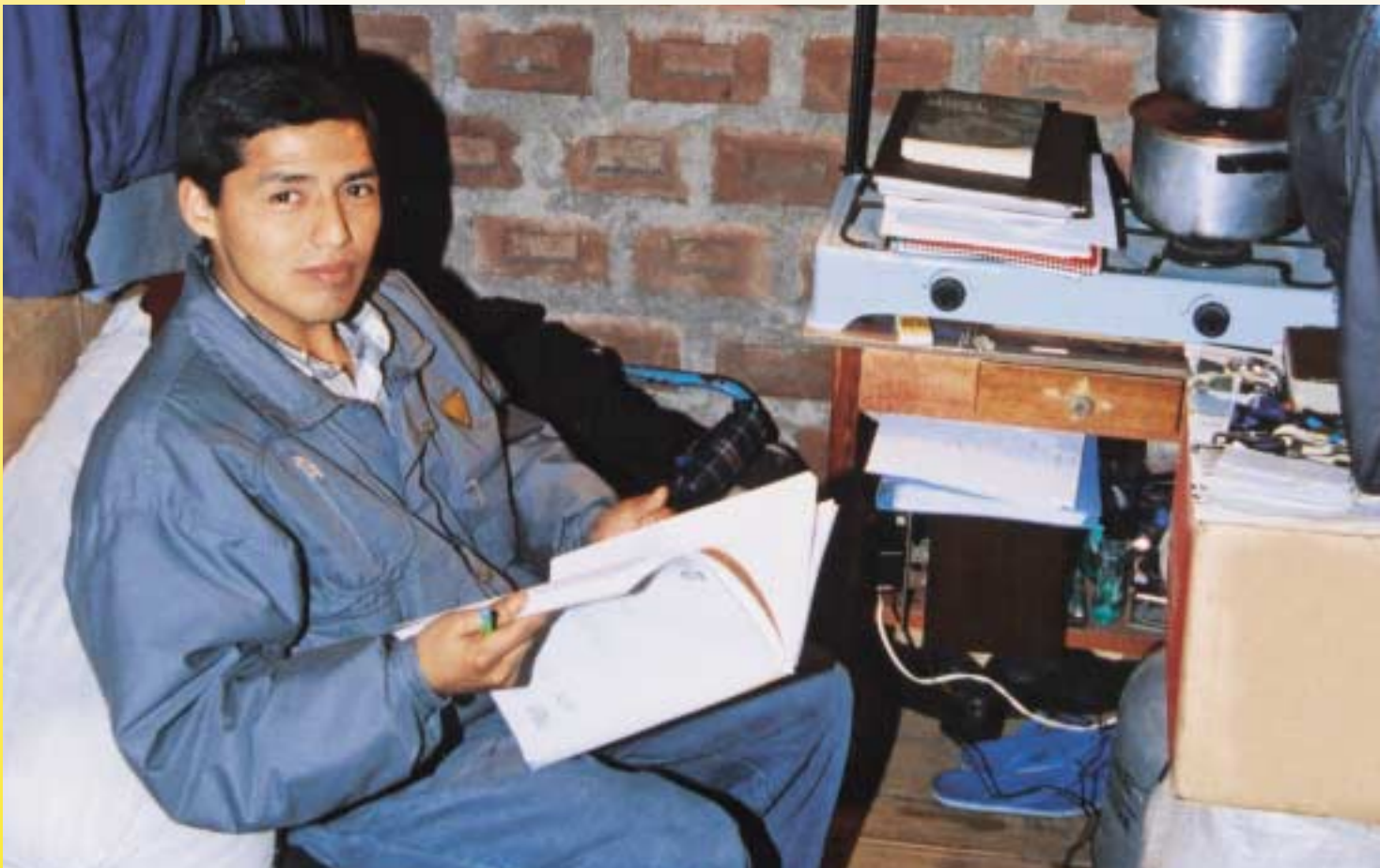
일이 교회가 당면한 과제 중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이 과제는 특히 라틴 아메리카 및 필리핀과 같이 급속한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시급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지도자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교육 기회를 갖고서 재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위치에 오르고, 결혼하고, 의로운 가족을 만들 때,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로운 가족들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의 교회 지도자들을 배출해낼 것입니다.

영구 교육 기금의 혜택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 관해 핑클리 대관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한 기술을 습득한 이 젊은이들은 대를 이어 물려받은 가난에서 벗어나 가족을 더 잘 부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며 지도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 이들은 충실한 교회 회원으로서 십일조와 헌물을 낼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이 사는 지역의 교회는 그들로 인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²

장래의 가족을 위한 축복이 이미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사는 한 젊은 귀환 선교사는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2001년 12월에 멕시코 베라크루스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귀환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높았으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설사 가족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영구 교육 기금을 통해 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은 합당한 젊은 남녀가 신청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18세에서 30세 사이
- 기혼 또는 미혼
- 교회에서 활동적이고 지역의 종교 교육원에 등록된 사람
- 영구 교육 기금이 승인된 지역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있으며, 학교에 다니는 사람
- 자신의 학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 재원이 부족한 사람



“저는 지난 주에 학업을 마쳤는데, 제가 과거에 벌었던 것보다도 세 배나 높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02년 12월 20일에 결혼했습니다.”

희망

과거에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희망이 솟아나고 있다는 것이 영구 교육 기금의 놀라운 효과들 중 하나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한 젊은이는 이러한 말로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 줍니다. “저는 실망한 나머지 좋은 직업을 갖겠다는 목표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영구 교육 기금이 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획득 [곧] 성취에 대한 예상 [곧]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³ 우리는 그것을 복음에 바탕을 둔 용어로서 우리가 구원 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 것을 바라는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간증을 지닌 우리 젊은이들은 불사불멸과 영생에 대한 희망을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상에 있는 동안, 훌륭한 직업과 그들의 기술과 재능을 발전시킬 기회를 포함하여 훌륭한 삶을 갖기를 기대할 수 없다면 다음 생에 대해 흥미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 때, 희망은 절망으로 바뀝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희망이 없다면, 구원이라는 영적인 희망은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영구 교육 기금은 이미 전세계의 젊은 남녀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 예언자가 그들에 대해 깊이 염려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기회의 열쇠라고 그분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젊은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교육과 훈련 그리고 만족할 만한 직업을 찾는 일에 돌려 놓았습니다. 직업 훈련과 지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이렇게 하여 젊은이들을 격려하는 것이 영구 교육 기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자 가장 밝은 빛임이 곧 증명될 것입니다.

자립

영구 교육 기금에서 효과적인 또다른 강력한 원리는

자립입니다. 헝클리 대관장께서는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것이든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은 “용자 금액을 상환할 것이며 그로 인해 다른 사람도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⁴ 그 분은 우리 젊은이들을 믿고 계시며 또 젊은이들도 이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자를 받은 사람들의 상환율에 관한 초기 보고서는 이 원리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고무적인 증거가 됩니다.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부분은 마치 성약을 지키듯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용자금을 상환하겠다는 굳은 약속입니다. 용자금 신청자들은 또한 자신들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금액만을 빌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숙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의 지역 사회에 머물러야 하며, 가능한 한 자신들의 학비의 많은 부분을 벌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런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혼한 한 젊은 부부는 영구 교육 기금 용자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과정 동안에 그들은 직업 선택과 재정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단기 훈련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자신들의 예산에 관해 심사숙고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그들은 간이 식품을 먹는 것으로 불필요한 지출 부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절약을 하면 용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학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영구 교육 기금은 교회 회원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자립심을 가르치는 효과적인 방법임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 혜택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와드나 지부, 그리고 교회 전체에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자립심을 키우고 그 모범을 배울 때 모든 지역 사회가 보다 발전될 것입니다. 자긍심과 자신감은 급속히 증대될 것이며, 그 효과는 실로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는가?

영구 교육 기금이 승인되는 지역에 거주할 경우:

- 종교 교육원에 등록한다.
- 가능하다면 일자리를

갖는다. 그래야만 생활비를 벌고 학비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영구 교육 기금 용자 신청에 관해 종교 교육원 책임자와 상의한다. 교회 교육 기구 관계자가 이 과정을 시작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희생

많은 와드 및 지부로부터 문자 그대로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이 도착했습니다. 기부금의 많은 부분은 교회의 평범한 회원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매일, 매주, 그들의 작은 기부금이 도착하여 기금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랑과 희생의 발로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 기금이 전세계 곳곳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희생의 정신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다 시려 깊고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선택을 하는 것에 관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빈곤과 절망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내면의 음성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참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편히 쉴 수 있고 또 어떻게 의롭다고 느낄 수 있을까?” 영구 교육 기금은 평범한 개인들이 재정적으로 보다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충분히 갖고 있어 여유가 있는 사람들과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서 유사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 해결책은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후서 8:9) 바울은 재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그들의 넉넉한 것을 다른 사람들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줄 뿐만 아니라 받게 될 것인데, 이는 “그들가난한 자의 넉넉한 것으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고린도후서 8:14)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린도후서 9:7)

이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유익한 상황으로 크나큰 혜택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빈곤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자금을 받은 사람들은 독립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들이 받았던 용자금을 상환합니다.

헝클리 대관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향상된 기회를 통해, 그들은 자신과 조상들이 오랫동안 겪어 왔던 가난의 순환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 고국에서 이 위대한 사업을 이끌어 갈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십일조와 헌금을 낼 것이며, 그로 인해 교회의 사업은 전세계로 확장될 것입니다.”⁵

권유

처음 발표된 이후로 영구 교육 기금은 한 예언자가 미리 본 시현에서 출발하여 강력한 현실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준비시키고, 희망을 키워 주며, 훌륭한 성품과 자립심을 심어주는 것으로서, 그 모든 것들은 다가올 세대를 축복해 줄 것입니다.

헝클리 대관장께서는 이 담대한 첫걸음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교회 회원들은 그 과정에서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라는 예언자의 권유를 받아들인 합당한 젊은이들은 그들 자신들과 가족을 더 잘 부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와 지역 사회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해 줄 기술들과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훌륭하고 합당한 젊은이들을 사랑하시며, 나누는 크기에 관계없이 순수한



의도로 주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영구 교육 기금의 설립을 통해 주님은 그분의 왕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또다른 강력한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장하여 좀더 의롭고, 좀더 관대하고, 좀더 큰 희망과 자립심을 갖고, 좀더 우리 이웃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

존 케이 카맥 장로는 1984년부터 2001년까지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했다.

주

1. "영구 교육 기금", 리야호나, 2001년, 7월호, 67쪽.
2. 리야호나, 2001년 7월호, 62쪽.
3.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0th ed., "hope", 558쪽.
4. 리야호나, 2001년 7월호, 62쪽.
5. "손을 내밀어 들어올립시다", 리야호나, 2001년 1월호, 62쪽.

이야기에 봅시다

- 영구 교육 기금에 참여할 때 누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가?
- 교회 지도자들이 왜 장학금 프로그램이 아니라 용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 왜 주님은 우리가 자립하기를 바라시는가?
- 처음에 영구 교육 기금에 관해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지금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
- 만족스런 취업이 가족 생활을 강화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강한 말일성도 가족이 어떻게 강한 지도자들을 배출하는가?
- 경전은 필수 원리로서 신앙 및 사랑과 함께 소망을 자주 포함시키고 있다.(모로나이서 10:20 참조) 소망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 학생이 왜 그토록 강력한 원리인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학생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위: 페루 리마에 사는 카를로스 살리나스 빌란토이는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있다. 아래: 학생들이 멕시코시에 있는 자동차 수리 학교에서 디젤 엔진 수리 방법을 배우고 있다.



숨 었던 곳에서 조심스럽게
엿보고 있던 제이슨은
서랍들을 살살이 뒤지고
다니는 침입자를 보고는 겁에 질렸다.

지금 집에 전화를 걸어라!

바바라 엘킨스 컷벌

크 아들 제이슨이 열한 살이었을 때 우리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경험을 했다. 때는 일요일이었고, 가족들이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이슨은 몸이 아프다고 투덜댔다. 우리는 그 아이를 집에 남겨 두고 가기로 결정을 하고는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 나중에 전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의 집회소 건물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제이슨이 도움을 청하면 신속하게 올 수가 있었다. 성찬식이 시작되기 직전에 나는 지금

즉시 제이슨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는 속삭임을 들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지만 제이슨은 받지를 않았다. 처음에 나는 그가 자고 있어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당시에 남편은 감독단에 있었고 이미 단상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몇 분 안에 돌아오겠다고 아이들에게 말한 후다른 아이들을 자리에 남겨 놓고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5분 동안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도착하자마자 집안으로 쏜살같이 들어간 나는 정신없이 제이슨의

이름을 불렀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으며, 제이슨을 찾을 수도 없었다. 잠시 후 나지막한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거실에 있는 소파 뒤에서 제이슨이 조심스럽게 기어 나왔다. 나는 그를 껴안았다. 그는 떨고 있었고 무엇인가 말하려 하고 있었다.

그 아이는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몸을 숨겨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었다. 제이슨은 그 즉시 일어나 소파 뒤에 몸을 숨겼다. 바로 그때 제이슨은 누군가가 앞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틀림없이 가족일 것이라고 생각한 제이슨은 숨었던 곳에서 조심스럽게

엿보았다. 검정색 스키 마스크와 장갑을 낀 채 서랍들을 살살이 뒤지고 다니는 침입자를 보게 된 제이슨은 겁에 질렸다. 그는 낯선 사람이 온 집안을 뒤지며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침입자는 떠났다. 물론 그 전화는 교회 집회소를 떠나기 직전에 내가 건 것이었다.

그 날 제이슨과 내가 경험했던 성신의 속삭임에 대해 나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제이슨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집으로 달려가 그 곳에 있도록 속삭임을 받은 것에 대해 나는 크게 감사한다. 그 침입자가 만일 제이슨을 발견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그 누가 알겠는가? 제이슨이 무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충격적인 경험에서 치유되도록 영이 도움을 주었다고 나는 믿고 있다. 현재 제이슨은 용기 있고 강한 선교사이며, 성신이 계속해서 그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고 있다. ■

바바라 엘킨스 컷델은 아이다호 아이다호폴스 암몬 스테이크 암몬 제7와드의 회원이다.

한다고 나에게 확신을 주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는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다.

흐느껴 울며 내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알기 위해 기도를 드리는 동안, 평화스럽고 따뜻한

느낌이 나를 감쌌다. 나는 기도를 멈추고 그 곳에서 가만히 무릎 꿇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을 통해 나를 위로하고 계심을 알았다. 지난 2년 동안 여러 차례 읽었고 또 큰 위안의 근원이 되어 왔던 성구들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내 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알기 위해 기도를 드리는 동안, 평화스럽고 따뜻한 느낌이 나를 감쌌다.



앞일을 알고 계신 주님

린다 심즈 드류

지에서 혼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드리면서 나는 매사가 순조롭지 못한 이유를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었다. 지난 이 년 동안의 개인적인 어려움은 내가 살던 조그만 마을을 떠나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한 구절은 니파이이서 4장 16절에서 35절까지로, 니파이가 “기뻐하라. 나의 마음이어 영육의 원수에게 다시는 굴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하는 28절이 특히 그랬다. 다른 구절은 교리와 성약 98편 3절로, 그 구절은 내 기도가 들릴 것이며 또 “너희에게 고난을 겪게 한 모든 일은 합동하여 도리어 너희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이름에 영광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는 확신을 내게 주었다.

그래서 비록 지금도 여전히 내가 그 마을에서 떠나야 한다고 느끼고 있지만, 앞으로는 잘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곳에 계셨고, 그분께서 원하신다면 계속 머물러도 괜찮겠다고 느껴졌다.

꼭 석 달 후에 이웃 주에서 의과 대학에 다니던 스물네 살 된 아들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그 다음 3주 동안을 병원에서 아들과 함께 보냈다. 내가 새 직장을 찾았다면, 휴가도, 여가 시간도, 병가도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아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새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직이라는 어려움이 내 어려운 처지에 더해졌을 것이다.

주님은 내 앞일을 알고 계셨으며 그래서 그 순간을 위해 내 기도에 아무 응답도 없으셨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화학 요법 치료를 받았으며, 처음 몇 달 동안 우리는 그가 살아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나는 아들이 살고 있던 이웃 주로 이사를 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아들이 병을 앓고 또 의과 대학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 계속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멀리 있을 수는 없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나를 도와 주고

계심을 알게 해 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으며 나는 내 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직장을 찾을 수가 있었다.

나는 그 지역에 오래도록 살면서 아들이 어렸을 적부터 사귀던 연인과 결혼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우등생으로 졸업하는 것을 보았다. 내 아들은 내게 첫손자녀를 안겨 주었다. 얼마 후 나는 오랫동안 존경하는 친구였던 한 훌륭한 남자와 결혼하는 축복도 받았다.

“기뻐하라. 나의 마음이어 영육의 원수에게 다시는 굴하지 말지어다.” “너희에게 고난을 겪게 한 모든 일은 합동하여 도리어 너희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이름에 영광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때가 이르렀을 때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다. 나는 그러한 축복들과 경전에 있는 위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으며 결코 잊지 않고 싶다. ■

린다 심즈 드류는 조지아 파워터 스포링스 스테이크 로스트 마운틴 와드의 회원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분

세르지오 리베이로

나는 1961년 브라질에서 태어났으며 여섯 살 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해 알게 되었다. 내 어린 시절은 너무나 행복했으나 우리 가족의 생활은 1970년 성탄절 즈음, 내가 희귀병에 걸리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일 년 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으나 의사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를 몰랐다. 아버지께서 손을 내 머리에 얹어 강력한 신권 축복을 해 주신 후에도 주님은 여러 차례 내 생명을 구해 주셨다. 한번은 아버지께서 그 분의 합당한 손을 내 머리에서 떼셨을 때 41도이던 열이 즉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의료진이 깜짝 놀라던 일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한 기적들이 약 4년 동안 계속되기는 했지만 병세는 최악의 상태였다.

어느 날 우리가 살던 도시에서 한 대회가 있었다. 부모님은 우리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1915~1994)를 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흥분되었으며 또 그 기회에 감사드렸다.

대회 날, 예배당은 차고 넘쳤다. 어머니는 애쉬튼 장로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여섯 살 된 내 동생이 그런 어머니의 절망스런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해서인가 사람들의 장벽을 뚫고 그 분께 다가갔다. 동생은 애쉬튼 장로에게 아픈 형을 축복해 달라고 부탁하고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졸랐다. 그러나 애쉬튼 장로는 그때 오실 수가 없었다. 우리는 대회가 끝날 무렵 그 분을 만날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다.

놀랍게도 말씀 서두에 애쉬튼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이 곳에 도착했을 때, 한 소년이 와서 매우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형을 축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소년의 형이 낫게 될 것이고 이 지상에서 그의 사명을 성취하게 될 것임을 제 음성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살 된 내 동생이 애쉬튼
장로에게 나를 축복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인가
사람들의 장벽을 뚫고 나갔다.

내 부모님에게 있어 그 말씀은 그 분들이 간구했던 향유였으며, 고통과 슬픔에 찬 나날로부터의 구원이었다. 우리는 새로운 치료를 시작했으며 애쉬튼 장로의 약속에 담긴 권세를 확신했던 나는 자신의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발견했다.

19살이 되었을 때, 나는 내가 받았던 약속을 부분적으로 성취하고 또 주님의 훌륭한 복음을 나눔으로써 그분을 섬기고 싶다는 내 마음속의 소망을 성취하고자 선교 사업을 나갔다. 나는 브라질 레시페 선교부에서 봉사했는데, 그 곳에서 나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가족들을 만나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하는 일에서 주님의 도구로 봉사할 수가 있었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나는

함께 교회에서 자랐던 한 아름다운 젊은 여성과 결혼을 했다. 하지만 우리의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주님은 그 아기를 거두어 가셨다. 나는 내 생활에 일어난 이 새로운 비극이 믿기지 않았지만, 주님에 대한 내 간증과 확신이 아직도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내 아내와 나는 다섯 자녀를 가진 아름다운 가족을 갖고 있다. 우리의 큰 아들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와드에서 감독으로 봉사했다. 과거의 내 병의 증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내 생명과 내 간증은 신권의 권세에 대한 믿음, 가족의 영원한 본질, 그리고 다윗이 노래한 시편 23편의 가르침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

세르지오 리베이로는 브라질 캄피нас 스테이크 하르딤
도 라고 와드의 회원이다.



얼음 위에 핀 꿈



새나 가즈나비
교회 잡지

아홉 살 때 크리스는 자신의 아이스하키 스케이트를 피겨 스케이트로 바꾸었다. 이제 그는 얼음 위에서 신던 자신의 스케이트를 전도용 신발로 바꾸었다.

“이 대업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로 순종케 하고 너희 마음에 미리 준비를 갖추어 장차 임할 일을 간증하게 하려는 것이니라.”(요리와 성약 58:6)

크리스 오브잔스키는 아이스하키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결정하기까지 삼 년 동안 아이스하키를 했다. 아홉 살 때 그는 자신의 아이스하키 스케이트를 피겨 스케이트로 바꾸고는 아이스 댄서로서의 성공적인 삶으로 그를 인도해 준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항상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피겨 스케이트를 배우겠다고 정말 걱정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스케이트 앞날을 사용하는 기술을 배우면서 계속 넘어지기 일쑤였지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이스 댄싱이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땀내 나는 아이스하키 선수들 대신에 아가씨와 스케이트를 타는 것이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크리스는 웃으면서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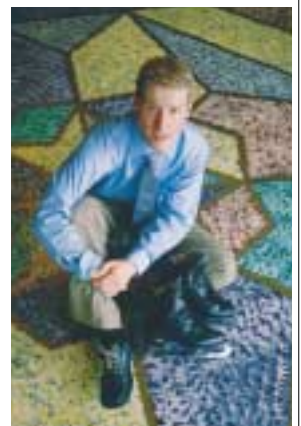
그에겐 큰 꿈이 있었다. 그와 그의 파트너는

미국 피겨 스케이트 대회 청소년부에서 2위를, 일반 대회에서는 3위를, 중국에서 있었던 국제 대회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그의 계획은 2006년 동계 올림픽에 출전한 후 스물한 살이 되면 선교 사업을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열여덟 살 때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저는 스케이트를 정말로 즐기는 것이 아니었고 운동을 하기가 싫었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한다. “저는 억지로 하려고 애쓰고 있었으며 더 이상 스케이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쭙었습니다.”

크리스는 감독을 찾아가 상의하면서 응답의 첫 번째 부분을 얻었다. 감독님은 선교 사업을 미루려 했던 그의 계획에 대해 기도해 보라고 격려해 주었다. “저는 그 분의 충고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습니다.”라고 크리스는 인정한다. “그러나 제 인생은 제가 정말로 묻고 또 정말로 들어야 했던 시점을 맞았습니다.”

크리스가 얻고자 했던 응답의 두 번째 부분은 성찬식 도중에 왔다. 청남 회장이 자신의 선교



선 교 사업을
하러
나가겠다는

계획을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크리스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일찍 선교사로 가려는 속삭임을 느꼈다.

크리스의 코치들과 파트너(아래)

는 크리스가 선교 사업을 위해 떠나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실망했지만 그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영이 그에게 말했다. “크리스, 너는 열아홉 살이 되면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야 해. 그렇지 않으면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메시지가 너무도 분명했기에 저는 누군가 그 곳에 있는지를 살피려고 실제로 몸을 돌렸습니다.”라고 크리스는 말한다. “열 배나 강한 느낌이 다시 왔고 저는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습에 몰입했을 때처럼 기도를 했다. 그는 하루에 적어도 두 번 경전을 공부하고, 하루에 적어도 세 번은 별도로 시간을 내어 진지하게 기도를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또한 그가 솔트레이크 센트럴 스테이크, 제13와드로 돌아왔을 때 주위에 있던 훌륭한 친구들과 가족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님

그날 밤 크리스는 파트너와 코치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 그들과 훈련을 시작했을 때, 그는 선교 사업을 갈 수도 있다고만 그들에게 말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가 그렇게 하리라고는, 적어도 지금 그렇게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비록 그들이 실망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저와 제 선교 사업을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크리스는 말한다.

크리스는 자신의 결정과 인생 행로에 대해 화평을 느끼고 있다. “제게 그런 속삭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러나 그 이후로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를 넘어뜨리려고 애썼습니다.”

두려움과 유혹을 이겨 내기 위해 크리스는 경전을 읽었고, 또 훈련을 받는 동안 생활했던 델라웨어의 스케이트장에서

새로운 규칙

아이스 댄싱에는 많은 규칙이 있어 어떤 동작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동작은 제한하기도 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창의성과 무용에 대한 재능이 필요하다. 크리스는 아이스 댄싱에서의 자신의 경험, 즉 파트너와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고, 엄격한 규칙에 따르고, 매일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하는 것과 같은 경험들이 선교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발틱 스테이크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은 크리스를 흥분시켰는데, 그것은 만일 그가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 아이스 댄싱을 다시 하기 원한다면 러시아어 구사 능력이 그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많은 선수들과 코치들은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그는 또한 나중에 코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저는 사람들을 복음의 울타리 안으로 데려오는 데 노력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지속적인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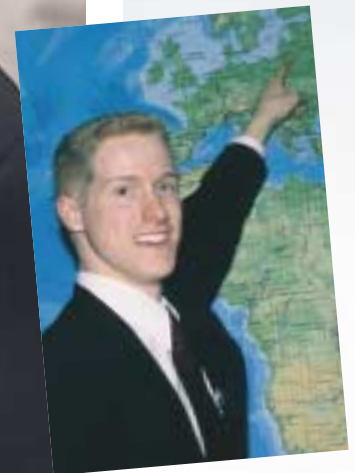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라는 속삭임이 크리스가 그의 인생에서 주님께 간구하고 또 인도를 받았던 첫 번째 경험은 아니었다. 열여섯 살이었을 때 그는 스케이트 파트너와 헤어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제게 축복을 주셨으며, 아버지는 영이 저와 함께하여 저를 위로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축복을 받은 다음 교리와 성약 58편을 읽으라는 속삭임이 크리스에게 왔었다. 2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그 구절들이 바로 저를 위해 기록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구절들에 있던 모든 것들이 제 생활에 일어났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구절들은 제게 너무도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58편에서 받은 권고에 순종하려는

노력으로 크리스는 주님께서 그에게 요청하신 선교 사업을 통해 봉사하고 있으며, 또 발트해 지역에서 구세주와 복음에 대한 간증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피겨 스케이트 앞날을 사용하는 것과 파트너를 바꾸는 일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가 인도를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임을 또한 알고 있다. ■

새나 가즈나비는 브리검 영 대학교 제2스레이크 BYU 제61와드의 회원이다.



동 반자인 월킨스 장로(아래)와 함께 선교사 훈련원에서 몇 주를 보낸 후에, 오브잔스키 장로는 지금 또다른 열음이 있는 곳, 발틱 스테이크 선교부에 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께서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고마운 상호부조회

교회의 선교사로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성신의 영향력을 느끼도록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동반자와 저는 한 젊은이에게 고든 비 힙클리 대관장의 말씀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 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이 그 젊은이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의 연차 대회 말씀을 최근에 읽었는데, 그것은 말일성도 젊은 여성으로서 제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닌 자매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도자들과 그분들의 연차 대회 말씀은 제가 훌륭한 자매가 되고 또한 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홀리아나 로사,
브라질 상 호아오 다 보아 비스타 스테이크
하비타시오날 지부

리아호나, 힘을 주는 커다란 근원

저는 3년 전에 교회 회원이 되었으며, 침례를 받은 이후로 리아호나를 한 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위대한 사업이 참됨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제게는 힘을 주는 커다란 근원입니다. 메시지를 통해 매달 저를 영적으로 새롭게 해 주는 참으로 영감 받은 지도자들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마르타 카스트로, 콜롬비아 파스토 스테이크
이피아레스 제2와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커짐

저는 여러 달 동안 다른 사람에게서 리아호나를 빌렸습니다. 이번 달에서야 제가 구독 신청한 잡지를 처음으로 받았습니. 리아호나는 제게 영감을 주고 또 복음에 관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잡지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을 키워 줍니다.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축복입니다. 제가

말일성도라서 너무 좋습니다.

매리 앤 시 페다, 필리핀 루세나 스테이크
루세나 제2와드

교회에 있는 훌륭한 친구

저는 2001년 5월 6일에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제 삶에서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저는 열여섯 살입니다. 비록 가족 중에서 저만 교회 회원이지만, 청남 프로그램에는 제가 부탁할 수 있는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또한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어른들과 가장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더클러스 에두아르도 디아즈 루이즈
베네수엘라 시우다드 오헤다 스테이크
오브레로 와드

모델 사진 촬영: 웰든 시 앤더슨

성공적인 가정의 밤에 관한 기사 모집

여러분의 가족은 성공적인 가정의 밤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창의적인 공과 아이디어, 봉사 계획, 활동, 간증 모임, 가족 평의회 등등 여러분의 가족에게 효과적이었던 경험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Family Home Evening Successes,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전자 우편 cur-liahona-imag@ldschurch.org으로 보내 주십시오.



친구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나니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궁핍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몬슨
부대관장은 그에게 나누는
것을 가르쳐 준 한
주일학교 선생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루시 게르츠라는 [이름을 지닌] 주일학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분은 아름답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으며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분은 경전의 말씀을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파티를 열기 위해 5센트와 10센트 짜리 동전을 모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게르츠 자매님은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소년 소녀들이 대개 먹는 것에 관심이 많듯이 우리도 케익, 과자, 파이, 아이스크림 등을 [상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멋진 행사이기에 가장 큰 파티가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선생님께서 우리 반 친구 한 명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우리에게 발표하셨던 1월의 우울한 일요일 아침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고 그 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분을 잃은 빌리 데븐포츠를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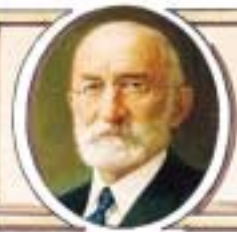
그날의 공과는 사도행전 20장 35절과 관련된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루시 게르츠

선생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가르침에 따르고 싶지 않나요? 반 전체가 파티 기금을 가져다가 우리의 사랑의 표시로 데븐포츠에게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모든 친구들이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동전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세어 큰 봉투에 모두 넣었습니다.

몇 사람이 세 블록을 걸어가서 빌리의 집에 들어가 그와 그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인사하던 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파티 기금이 담긴 하얀 봉투가 우리 선생님의 가냘픈 손에서 슬픔에 잠긴 아버지의 궁핍한 손으로 전해질 때 그 곳에 있던 각 사람의 눈을 적셨던 눈물을 저는 항상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발걸음으로 예배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았으며, 우리의 기쁨은 충만했고, 우리의 이해력은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 참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축복 받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

1992년 4월 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생애에서

브리감 영의 친구가 됨



어느 겨울날, 여섯 살 된 히버 제이 그랜트는 브리감 영 대관장의 썰매 뒷 부분을 몰래 잡았다. 그는 단지 한 블록만 타고 싶었다. 그러나 썰매가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에 썰매가 멈출 때까지 그는 손을 놓을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썰매가 멈추었을 때는 꽤 멀리 간 상태였다. 그는 영 대관장에게 들리지 않고 달아나려고 했다.



잠깐! 저 어린 소년이 거의 얼어 붙을 지경이군! 저 아이를 소가죽 담요로 덮어 주십시오.



이름이 뭐지?

제데다이아의 아들이 틀림 없구나. 나는 네 부친을 매우 좋아했단다. 그 분은 내 제2보좌였지.

히버 그랜트입니다, 대관장님.



브리감 영은 여섯 달 후에 히버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히버는 그 말에 따랐다. 그 이후로 그와 브리감 영 대관장은 친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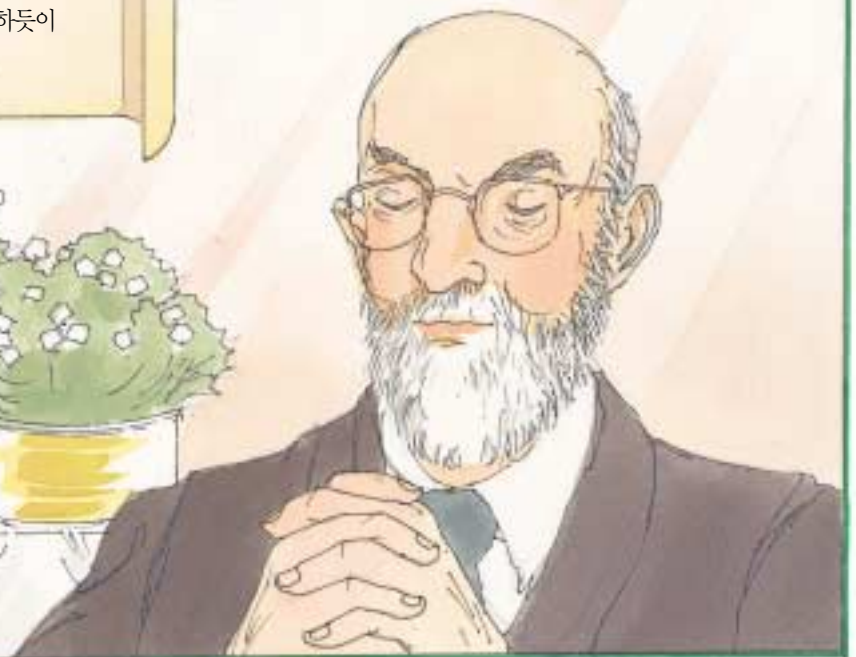
히버는 거의 자신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 만큼 브리감 영 대관장의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때때로 히버는 가족 기도회에 같이 참여했으며 거기서 그는 영 대관장이 기도하는 방법에 놀랐다. 히버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저는 ... 머리를 들고 몸을 돌려서 실제로 주님께서 그 곳에 계신 것이 아닌가 하고 브리감 영 대관장님이 기도하던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분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언자로서 히버 제이 그랜트는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 드리는 방법을 배웠다.

Conference Report, 1917년 4월, 23쪽; Conference Report, 1919년 6월, 7쪽에서 인용.



성전의 축복

엔리케 알 팔라벨라 장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중미 지역

제가 다섯 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과테말라의 과테말라시티에서 살았으며 그 당시에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구원의 계획이나 아내의 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 분에게 있어 혼자서 네 자녀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열두 살 때 누나는 우리 집 앞을 지나가던 두 명의 선교사를 보자, 그들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몇 주 후에 누나와 저는 침례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확신을 갖지 못하셨습니다. 와드에서 한 형제님이 아버지를 방문하여 구원의 계획에 관한 소책자를 놓고 가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글을 읽었을 때, 아버지는 자신이 교회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그 분의 소망과 꿈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가까운 성전은 미국 애리조나 주의 메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비가 많이 드는 여행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께서 지방부장으로 부름을 받으셨을 때, 선교부장님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자, 무엇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는 성전에 갈 예정입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 분은 애리조나 메사 성전까지 같이 여행할 사람을 약 100명 정도 모아 단체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인봉을 받았으며 우리 모두는 우리 어머니가 함께하고 있다는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성전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여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 블랑카와 제가 결혼할 때, 과테말라 법률에 따라 먼저 일반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죽을 때까지만 결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일반 결혼식을 저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의 소유물 몇 가지를 팔기는 했지만, 우리는 다음날 애리조나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성전에서 아내와 영원을 위해 인봉을 받았던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경험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과테말라로 돌아갈 경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갔을 때, 한 사람이 저와 악수를 하면서 손에 20달러를 쥐여 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도 똑같이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처지에 관해 전혀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과테말라에 성전 건축이 발표되었을 때 저는 스테이크장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기금을 모으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돕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는 미화로 10,000달러를 모금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스테이크 회원들이 열성적으로 동참하여 우리는 27,000달러나 모았습니다. 그 액수는 우리 목표보다도 거의 세 배나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우리의 막내 다니엘이 열한 살이었을 때, 그 아이는 자신이 열두 살이 되면 특별한 선물을 받고 싶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가서 조상들 몇 분을 위해 침례를 받고 싶어했습니다. 온 가족이 가족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친척들과 더 가까워졌으며 성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명의 조상들을 찾아냈습니다. 아들의 열두 번째 생일 날, 그는 그 분들을 위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의식을 집행했습니다. 다니엘은 성전 사업에 관해 더욱 큰 간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듯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들 가운데 많은 부분을 주님의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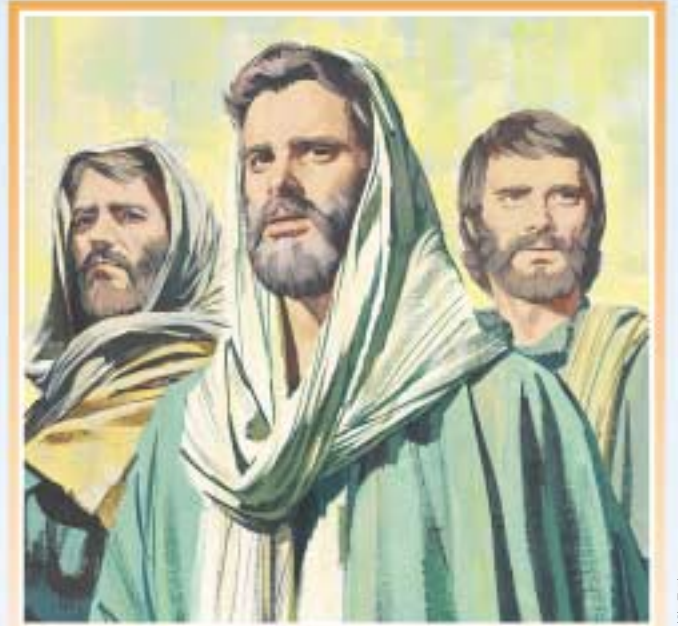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후에 미대륙을 방문하신 내용을 읽을 때, 그분께서 어린이들을 불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 기록할 수 없었던 때가 경전에는 그리 많지 않은데, 이때가 그런 경우의 하나였습니다. 말씀과 축복이 너무 성스러워 그것들을 기록할 수조차 없었습니다.(니파이삼서 17:12~23 참조) 예수님은 그 당시의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십시오.

저는 열두 살이었을 때의 제 간증이 지금의 간증만큼 강했다고 믿습니다. 꼭 성인이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갖거나 세상을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때때로 부모님, 친척들, 그리고 세상을 위해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यो”(마태복음
16:19)

신약 시대 이후에 있었던 일들



단
행
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땅에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도행전 6:2~4; 7: 11:19~21



사악한 사람들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명을 변경시키려 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사악한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았으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6~8; 디도서 1:10~11; 요한1서 2:18~19



많은 의로운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자, 교회를 인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권의 열쇠는 지상에서 거두어졌으며,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인도할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34; 24:8~10; 로마서 8:36; 고린도전서 4:9~13; 베드로전서 4:12; 예수 그리스도, 제임스 이 탈매지, 743~744쪽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서로 다른 많은 교회들이 있었으나, 그 중 어느 교회에도 사도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신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에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3:19~26; 데살로니가후서 2:1~4; 디모데후서 4:3~4



1820년에 요셉 스미스라는 한 소년은 어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집 근처의 숲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어느 교회가 옳은지 알려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요셉 스미스서 2:3, 5, 10, 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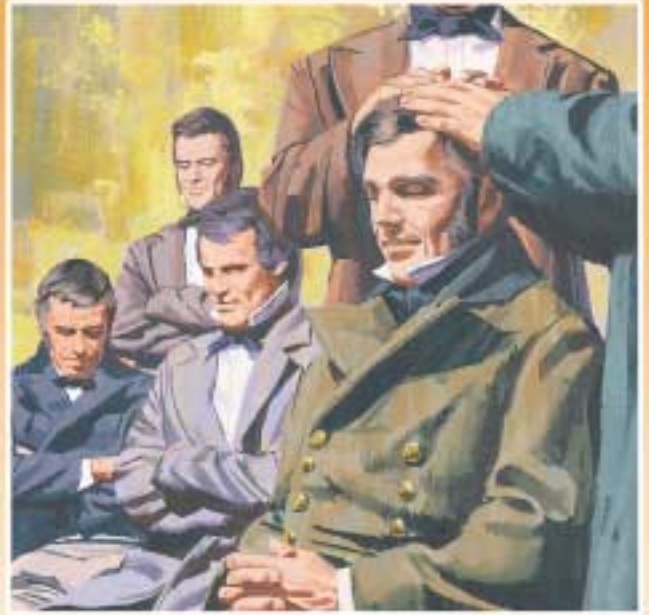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요셉에게 모든 교회가 옳지 않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셉 스미스서 2:17~19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상에 회복하기 위한 예언자로 요셉 스미스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신권을 주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셨으며, 요셉이 몰몬경을 번역하는 것을 도와 주셨습니다. 1830년 4월 6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조직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서 2:33, 66~75



예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을 도울 십이사도를 택하셨던 것처럼, 요셉 스미스가 교회를 인도하는 일을 돕기 위해 십이사도가 성임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교리와 성약 102:3; 107:22~23, 35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교회에 관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분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선교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가르치기 위해 선교사들을 보내라고 요셉 스미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18, 30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있었던 교회와 똑같은 교회입니다.

교리와 성약 115:4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라 이 윌슨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고 나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언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하나님을 믿는 신앙 지도서, 앞 표지 안쪽)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고, 또 여러분이 지상에 있는 어느 한 가족에 속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족들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도 특별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오기 전에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살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경전은 “우리 모두는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시편 82:6)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존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와 눈동자 색깔이 똑같습니까? 머리카락 색은 아버지와 비슷합니까? 자녀들은 종종 부모님과 매우 비슷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 대로 사람을 창조”(창세기 1:27) 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분이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언자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이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신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이 “난 하나님의 자녀”(어린이 노래책, 2~3쪽)를 부를 때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분과 같이 되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은 여러분이 언젠가는 다시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성구 상자

친구들 13쪽을 조심스럽게 떼어 내어 두꺼운 종이 위에 풀로

붙인다. 굵은 선을 따라 오린다. 상자를 만들기 위해 점선을 따라 접는다. 각각의 붙이는 곳에 풀칠을 한다. 상자를 닫기 위한 맨 위쪽의 붙이는 곳은 접지만 풀칠을 하지 않는다. 빈칸에 여러분의 모습을 그리거나 사진을 붙인다. 상자의 각 면에 있는 참조 성구를 읽는다.

참조 성구들을 조각으로 오려 내어 상자 안에 넣는다. 매일 하나의 성구를 택하여 여러분의 경전에 표시를 한다. 성구들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가정의 밤에서 그 상자를 활용한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아기의 사진을 어린이들에게 보여 주거나 곧 아기를 낳을 자매를 초대하여 아기의 출생 준비에 관해 말해 달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기대하고, 옷을 준비하고, 아기를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등) 이런 내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관해 어떻게 느끼시는가와 비교해 본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준비하셨다.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고, 옳은 선택을 할 때 그분은 기뻐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선택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 연구를 준비한다.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65~166쪽 참조) 빨강, 노랑, 파란 색 종이를 어린이 모양을 오려서 만든다. 어린이들이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를 때, 사람 모양의 그 종이들을 돌리게 한다. 음악이 멈췄을 때, 어린이들이 빨간 종이를 들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한 가지 방법을 들게 한다. 만일 노란 종이를 들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그들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들게 한다. 그리고 만일 파란 종이를 들고 있다면 사례 연구를 풀어 보게 한다. 각 어린이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한 가지 방법을 적게 한다.

2.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이 그들을 설명하는 말을 할 때마다 일어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코가 있는 모든 사람, 또는 파란 색 옷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과 같이 어린이들 사이에 있는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과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칠판의 한 편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적고, 다른 한 편에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적는다.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사랑, 친절, 관대함 등등)을 몇 가지를 적어 보게 한다. 그런 다음 그 특성들 중에서 어린이들이 갖고 있거나 발전시키고 싶은 특성 몇 가지를 적게 한다. ●

풀칠을 하지 않고 접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시편 82:6;
교리와 성약 76:24 참조)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모세서 2:27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육신을 갖는
축복을 주셨다. 내 몸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16~17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그분께
돌아가도록 돕기 위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상에 보내셨다.(교리와
성약 49:5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돕고 또
인도하시기 위해 지상의 가족을 내게
주셨다.(교리와 성약 68:25~28 참조)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서 살았다.(교리와
성약 93:29 참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니파이서서
2:25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게 어떤 재능을 주셨다.(교리와 성약
46:11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그분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경전을 주셨다.(교리와
성약 33:16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교리와 성약 112:10
참조)

나는 언젠가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교리와 성약 78:7
참조)

풀칠 한다

풀칠 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시편 82: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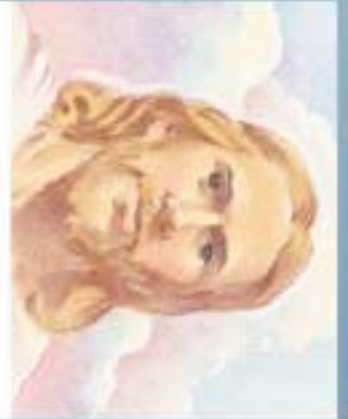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게 지상의 가족을
주셨다.(교리와 성약 68:25~28 참조)



나는 나를 위해 창조된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다.(교리와 성약 14:9 참조)

(요한 9:1-3 말씀참조) :오한복을 보았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만민이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나를 위해
창조하셨다.(교리와 성약 14:9 참조)

나는 계명을 지키므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다.(요한복음 14:15 참조)

풀칠 한다

풀칠 한다



(요한 14:21-23 말씀참조)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 하면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계명에 순종하도록 도와 주실
것이다.(니파이서서 3:7 참조)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나는 그분을 기억하고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요한복음 14:3
참조)

신앙의 노래

론다 김 힌리치슨
실화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니라” (교리와 성약 25:12)

일 곱 살 된 안젤라가 텐트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두 오빠인 마이클과 마크는 이미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멀지 않은 곳에 그들의 텐트를 치셨습니다.

“침낭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자” 라고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세 어린이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안젤라는 자신이 받은 많은 축복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으며 폭풍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또 잠을 잘 자게 도와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드린 후에 안젤라는 침낭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후드득, 후드득, 후드득, 비가 텐트 위에 부딪히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오랫동안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마이클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봐, 안젤라, 러시모아 산이 근사하지 않니?”

“맞아” 라고 안젤라가 하품을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공원에 있는 동물도 굉장해.” 마크가 말했습니다.

“나도 동물들이 좋았어” 안젤라도 동의했습니다. 안젤라는 길 가까에서 풀을 뜯고 있던 새끼 들소들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녀는 천천히 지나가는 차를 쳐다보던 새끼



들소들의 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번쩍! 우르르팡팡!

안젤라는 눈을 아주 꼭 감았습니다. “그만 자야지” 안젤라가 혼자서 말했습니다. “번개가 칠 뿐이야” 가족이 휴가를 보내는 동안 거의 매일 비가 왔습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번개가 마치 불화살처럼 하늘에서 번쩍였으며 천둥은 마치 북소리처럼 울려댔습니다.

번쩍! 우르르팡팡!

안젤라는 침낭을 끌어당겨 머리를 덮었습니다. “그만 자야 돼” 안젤라는 다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마크, 깨어 있니?” 마이클이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응?” 마크는 잠결이라 졸리운 목소리였습니다.

“깨어 있냐고?”

번쩍!

마크는 눈을 떴습니다. “이제 깰어” 그가 말했습니다.

우르르팡팡!

“안젤라, 자니?”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안 자” 안젤라가 우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 엄마 아빠가 계신 텐트로 가고 싶어.”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어.”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나가면 비에 흠뻑 젖고 말 거야. 게다가 번개가 칠 때 밖으로 나가는 건 위험해.”

안젤라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무섭단 말이야.”

번쩍! 번쩍!

“무서워할 필요 없어” 마크가 말했습니다.

“번개가 정말 멋있지 않니! 구름 속에서 큰 정전기가 일어난 것뿐이야.”

우르르팡팡!

“그리고 천둥은 큰 채찍소리 같잖아!” 그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안젤라는 벌벌 떨었습니다. “난 천둥이 싫어!”

번쩍! 우르르팡팡!

“그럼, 너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것들을 생각해 봐.” 마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 거야.”

안젤라는 눈을 감고 노란 꽃이 핀 들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젤라는 웃으면서 언덕에서 들판으로 달려 내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번쩍! 우르르팡팡! 번쩍! 번쩍! 우르르팡팡!

“효과가 없어.” 안젤라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서운데.”

갑자기 비가 텐트에 더 심하게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안젤라는 침낭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무서운 느낌을 떨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에 조용한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노래를 하면 어떨까?” 시끄러운 중에서도 오빠들이 듣기를 바라면서 안젤라가 소리쳤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그러셨는데, 초등학교 노래를 부르면 더 좋은 느낌을 갖는 데 도움이 된대.”

“좋았어.” 마크가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노래를 할까?”

“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떨까?” 마이클이 제안을 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안젤라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 ...”

안젤라는 노래를 멈췄습니다. 오빠들이 함께 노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에게 내 노랫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하고 안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젤라는 더 크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도록
가정을 주셨네”

이제는 오빠들도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찾아 가게/도와 주소서
주와 함께 살도록/가르쳐 주소서”
(어린이 노래책, 2~3쪽)

번쩍! 우르르팡팡!

“이제 어떤 노래를 부를까?” 안젤라가 물었습니다.

“같은 곡을 다시 한번 부르자.”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평안이 텐트에 찾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안젤라, 마이클, 마크는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불렀습니다.

“효과가 있었어!” 안젤라는 따뜻한 침낭 속으로 몸을 누이며 혼자서 말했습니다. “이젠 잠을 잘 잘 수 있어.” 눈을 감자 또 다른 생각이 슬며시 마음속을 채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길을 찾도록 도와 주신다는 것을 난 알아.” ●



“여러분이 부르는 아름다운 초등학교 노래와 같이, 여러분 개개인도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1899~1994),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101쪽.